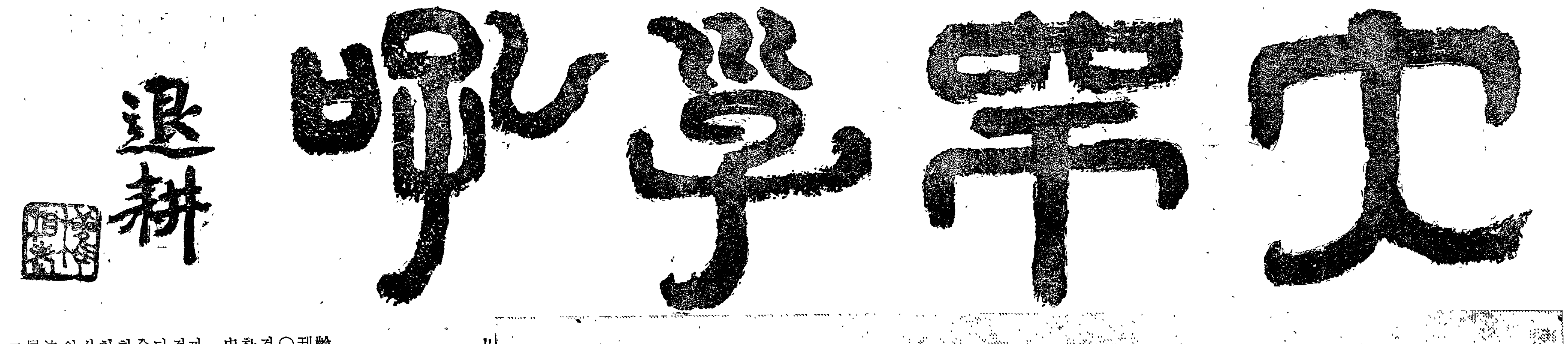
東大新聞

發行編輯兼印刷人 鄭斗石
主幹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購讀料 貳拾원
一部定價 五원

今週 一言

사랑도 미움도없는 사람은 모든구속과 걱정이 없다

—〈法句經〉—



註=文曰、大師子吼 戲揮鈍毫聊作東大新聞二百號之祝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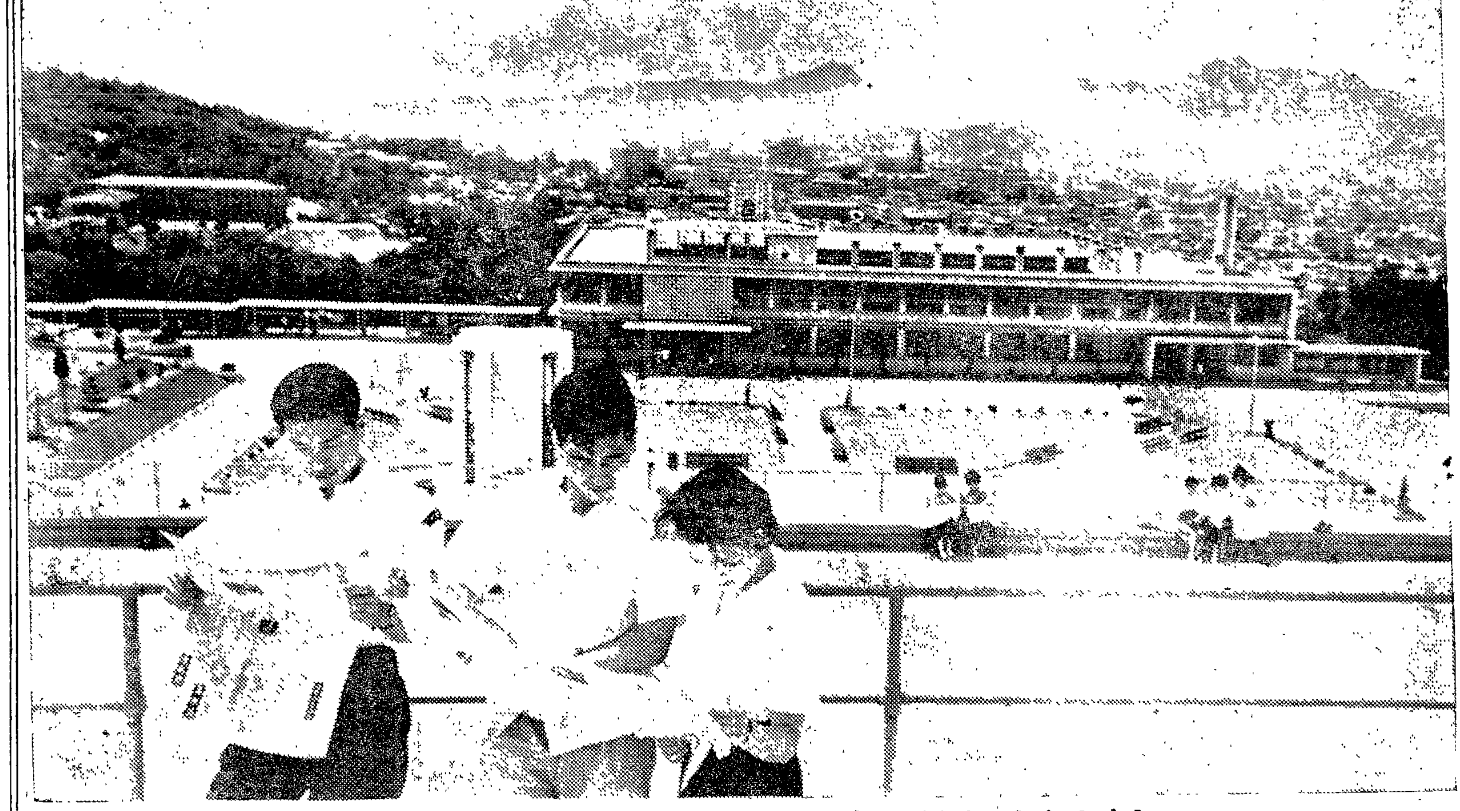
社說

紙齡二百號에 부쳐서

本紙는 健全한 學風造成과 大學發展에 盡力해 왔다

東大新聞은 이번號로서 紙齡二〇〇號를 맞이한다。週刊單位의 本紙가 紙齡二〇〇號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其間의 年條를 表示하는 것으로 決코 짧은 歷史는 아닐 것이다。

本紙가 東國大學校發展에 끼친 影響力이야 말로 決코 적지 않았으리라고 自負한다。本紙는 創刊以來 恒常 全體學生들의 代辯紙로서 굽힘없이 繼續的인 努力을 바쳐 왔다。언제나 學生便에서 學校發展을 爲하여 싸워 왔었기 때문에 그 길은 決코 順坦치만 않았다。當局者의 見解에 拒逆하였다고 해서 配布中止當한 일도 있었고 編輯責任者의 不當한 解免과 學生記者의 叱責은 한두번이 아니였다。그러나 編輯者들이나 學生記者全員은 이에 屈하지않고 東國大學의 發展을 爲하여 曲筆하지 않았음을 몇몇이 自負하는 바이다。其間二〇〇號씩이나 本紙를 發刊해 오는 동안의 苦痛스러운 일、輕蔑當한 일등 이루 헤아릴수 없었으니 그 일은 本紙에 直接 參與해 보지 못하고서는 알 道理가 없을게다。흔히 讀者層에서는 大學新聞의 使命과 그 運營原則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對하여 質問을 해오는 일이 많았다。그럴 때마다 大學新聞도 하나의 新聞인 以上 大學社會의 公器요 木鐸이라고 自信있게 答하였다。大學社會의 公器라고 하는 것은 大學新聞이 社長이나 主幹 또는 몇몇 學生記者들만의 新聞도 아니요 大學全體의 新聞임을 말하는 것이고、木鐸이라 함은 적어도 眞實이고 正論이라면 그 主張을 떳떳하게 貫徹하는 [illegible] 屈하지 않는데 躊躇없어야 한다는 것이다。本紙는 [illegible] 大學新聞의 使命과 名分을 다 [illegible] 스스로 自問自答할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때로는 當局의 干涉에 迎合한 일도 있었고 또는 一部學生들의 意見을 마치 全學生層의 輿論인것처럼 報道한 일도 [illegible] 點에 關하여 깊이 [illegible] 同時에 앞으로 [illegible] 없도록 다짐하는 [illegible] 本紙의 光榮된 今日이 있기까지는 讀者를 비롯하여 [illegible] 構成員의 피와 땀이 있었다。그러나 그 가운데 重大한 要素는 學生記者들의 良識과 熱意에 依한 것이였다고 [illegible] 學生記者는 [illegible] 學生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學校를 爲한 것인가에 對하여 恒時 생각하고 判斷하여 [illegible] 汨沒하였다。良識과 熱情을 가진 敎授、[illegible] 學生들의 [illegible] 自己報道에 [illegible] 學校發展에 [illegible] 一時의 威信 [illegible] 開學以來 [illegible] 批判 [illegible] 議的 態度 [illegible] 大學新聞 [illegible] 苦衷 [illegible] 主張을 [illegible] 不正當한 曲筆 [illegible] 新聞이라면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本紙는 학생들의 與論을 反映시켜서 학생 指導에 뒷바침이 되어야 할 任務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最大한 與件이 許諾하는 限度內에서 批判도 하고 建議도 해왔든 것이다。오늘의 東大新聞을 이루워 놓은 것은 不斷한 努力이 [illegible] 한편 本紙는 校內학생들에게만 局限한 것이 아니라 數많은 졸업생의 代辯을 擔當해 와야만 했다。本紙는 東國大學校와 더부러 無窮無盡하게 成長、發展하여야 하겠다。이 일은 本紙에 直接 參與하는 몇몇 학생이나 編輯者들의 熱情만 가지고서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學校當局이나 敎授、全在학생의 鞭撻과 協助는 勿論 [illegible] 國內各界各層의 同門들의 指導가 絶對 要請되는 것이다。오늘 本紙가 紙齡二百에 이르기까지 本紙의 育成發展에 物心兩面으로 援助하여 온 學校當局과 敎授、학생全員에게 眞心으로 感謝를 드린다。



『東大新聞은 이렇게 學生들의 伴侶가 되어있다』

光榮의 紙齡二百

굽힘없이 자라온 大學의 公器

嶄新한 學風造成、躍進을 期約

東大新報
東大時報
東大新聞
東國月報

<變遷되여온 題號들>

東大新聞年譜

東大新聞은 西紀一九五二年十一月五日 開校記念日을 期하여 釜山에서 순수한 學生들의 손으로 創刊된「東國月報」가 그 嚆矢이다。六·二五戰亂으로 避亂살이를 하면서、誕生을 본 本報인지라 그의 가는 길은 갖은 試練과 피와 땀의 얼룩이 아닐수 없었다。그러나 眞理의 門을 두드리는 東大人의 義롭고 슬기로운 學風을 이룩하고 創造的 精神의 風土를 造成하기에 本報는 한결같이 敢해야만 했으며、거친 손길과도 싸워야만 했다。굽힘없이 初創期엔 編輯面은 물론 取材面에 있어서나 未熟을 免치 못하였고 運營面도 不安定했던 것이 事實이다。그런데로 갖은 試練과 惡條件의 달피、克服을 위하여 不斷한 努力은 쌓이고 쌓였다。그리하여 오늘、東大新聞은 大學의 言論暢達을 通하여 創造的 知性과 熱情的 氣風 振作에 그 貢獻이 至大하다고 自負하기에 이른 것이다。東國月報에서 東大時報로、다시 東大新報로、東大新聞으로 改題를 거듭하며 東大人의 跳躍臺가 되어온지 十餘星霜—。그 紙齡이 이제 二百號에 이르렀다。多事多難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illegible] 아카데미ㅋ·저널리즘의 唯一한 本木鐸임은 다시 다짐하면서 그 年輪을 더듬어본다。

▲一九五二年 釜山避難時、本國文科에 在學中이던 黃福東、李鍾出 兩同門을 主動으로 崔鳳守·白철敎授의 指導아래「東國月報」가 創刊되어 四號까지 發刊됨。

▲還都後인 一九五三年四月부터 梁柱東敎授 主管下에 李曔、金鎭福 兩同門이 三號부터 發刊。

▲一九五四年六月二日 公報室로부터 定期刊行物 第二七三號로 許可를 받음。

▲一九五五年二月二十日字 第一九號부터 倍大版 四面으로 增面을 단행했음。同年 七月七日字부터「東國月報」를「東國新報」로 改題코 二十二號를 發刊。同年九月五日「東大時報」로 改題코 二十三號부터 初代 編輯局長에 金鎭福同門이 就任。한편 運營委員會가 構成되었는데 同委員엔 梁柱東大學院長、崔鳳守文理大學長、鄭斗石學生處長이었고、顧問엔 張元圭庶務處長、趙殷澤敎務處長이 推戴됨。

▲一九五六年四月 本社屋을 現第一體育館옆 假校舍로 移轉함。

▲一九五七年四月九日字 第五十四號 事件으로 金鎭福編輯局長이 辭任하고、崔鳳守文理大學長 主管下에 學生編輯長 宋在甲同門과 學生總務 金炳敏同門이 繼續 發刊함。

▲一九五八年九月 張龍同門이 實務責任者로 就任함。

▲一九五九年二月十二日 學生編輯部長에 權泰鎬同門。

▲一九五九年四月 學生編輯長에 金炳勛同門。同十月부터 構內印刷所에서 新聞을 製作하게 됨。

▲一九六〇年四月 文理大講師 沈友俊同門이 實務責任者로 就任。編輯委員에 委囑됨。本報는 第一編輯 朴尙均、第二編輯取材部長 [illegible] 活氣를 띄었음。

▲一九六〇年十月 主幹制를 두어 最初의 主幹에 鄭斗石敎授가 就任。

▲一九六一年 同門編輯陣容을 强化하고 十月 鄭斗石總長이 就任함에 따라 第三代 主幹에 [illegible] 就任。

▲日 敎授의 行人에 公報部에 登錄番號 C—1을 登錄하여 許可됨。

▲同年十一月 金鎭福敎授 主幹에 就任。編輯部、發送部、總務部、調査部를 强化하고 構內印刷所에서 每주 八面 特輯號를 發刊함。

▲一九六二年 七月六日字 公報部 許可를「東大新聞」으로 題號를 變更함。

몇가지 要望

젊은「旗手」들에게

梁柱東

「靑年이 힘이 없다고 생각치 말라!그대가 내게 말하지 못한다고。들으라!다음 방에서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똑똑하고 强調的이다。그는 자기同時代人들에게 말할 줄을 아는 모양이다。창피스럽게 혹은 대담하게 그러면、그는 우리 年長者들을 매우 不必要하게 만들 줄을 알 것이다。」

〈에머슨、「自恃論」〉

나와 같은 中老人의 평범한 「訓話」나 철늦은 「修養談」이 새 世代 젊은이들에게 무슨 대단한「效力」이 있을듯 싶지않다。그들은 이미 우리와 壁을 隔한 「다음 방」에서 그들의 새로운 「생각」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니 날더러 구태여 靑年들에게 무슨 「글」을 부치라면、역시 자기의 過去시대나 回想하면서 몇 마디 抽象的인 「激勵의 말」이나 쓸밖에。

첫째、靑年은 먼저 무엇보다도 청년답게 「싱싱」하라。쉐익스피어의 어느 詩句에 「靑年 시대」를 「Salad days」라 일컫은 것을 기억한다。青年의 청년다운 所以는 그 感覺、感情、知性、思想등 일체가 그야말로 「新鮮한 채소」와 같이 산뜻하고、싱싱하고、빳빳함에 있다。소금에 저린 배추마냥 후줄근하거나、無力하거나、陳腐해서는 못쓴다。그는 어느 시대에나 創意者요、「旗手」요、開拓者요、「先行詞」이다。그에게 模倣은 「넌센스」요、追從은 屈辱이다。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黑과 白을、美와 醜를、善과 惡、義와 不義를 명확히 辨別·認識하는 先天的 能力을 가졌고、이른바 理論과 實踐을 위낙 同一視하는 체질적 長點을 가졌다。청년은 저 中年이후 사람의 歸依處인 「妥協」과 「糊塗」를 일체 눈도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한다。

둘째、그러매로 새 時代의 청년은 모름지기 저 해묵은 先輩들의 陋習인 「점잔」을 일체 배우지 말고 또 부리지 말라。「점잖」단 것은 본시、또한 결국、「늙엇」단 말이다。청년이 왜 「젊잖아」야 하지、「젊어」야 할 것인가? 실로 과거의 우리 國民性과 그 氣質을 이처럼 無氣力하게、消沈하게 만든 것은 이「점잖」다는 封建的인 한 말이 아니었던가。현대의 청년들은 과거 및 현재의 「양반」들처럼 「점잖」을 필요가 없다。청년은 어디까지나「젊」고、潑剌하고、뛰놀고、能率的이어야 한다。무론 그렇다고 그들에게 放縱과 粗鹵와 「까부름」을 勸奬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새世代의 主人公들에게 충분한 「活動」의 그라운드와 「飛躍」의 臺를 쾌히 마련·許容하여 줌이 우리들 年長者들의 당연한 義務가 아닐까。그러기에 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너무 「얌전」과 「服從」만을 强要하여 그들의 「氣魄」과 「용맹」을 지지르는 종류의 교육을 반대한다。「理由없는 反抗」은 성가신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反抗없는」子女」를 가진 父母는 처량한 존재이다。

세째、나는 특히 우리나라 현대청년들에게 좀 「어리석」기를 願한다。지금의 一部 靑·少年들은 내가 보기엔 미상불 약은것 같기 때문이다。과거 우리들 청년시대(三·一운동 前後)에는 청년들이 모두「어리석음」을 자랑으로 삼았었다。두 눈섭 사이의 距離가 두어 치(寸)쯤 되고、利害를 모르고、打算을 모르고、그야말로 요즘 청·소년들의 流行語인「收支」란 말을 통 모르고—무릇 그러한 「超현실的인 태도를 「豪氣」라 불렀고、스스로 높다 생각했었다。무론 그때와 지금과는 생활體制가 다르니、이「어리석음의 哲學」도 오늘엔 자못 無理할지 모른다。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 南山 위의 소나무는 죽죽 뻗어 나가는데、花盆 위에 심은 나무는 꼬부랑 꼬부랑 제 아무리 가장 妙하게 보이고、가장 약은 것 같고、賢明한 체 하지마는 결국 큰 材木은 못되는 것이라고。더구나 저즈음 한때 유행되었던 사회적 인잖은 風潮와 현실의 어수선에 끌리거나 휘몰리어서 청년들조차 흔히 「正直」과 「努力」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手段」과 「不勞所得」을 賢策이라 여기는 傾向이 아직도 一部에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법하다。이것은 참으로 새 世代의 청년으론 이제 斷乎히 一掃해야 할 묵은 偏見이다。그러한 생각은 결국 「약빠른 고양이가 밤눈을 못보」는 격이요、스스로를 劣等국민、敗亡민족으로 만드는 가장 위태로운、슬퍼할만한 現象이다。콩 심어 팥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太陽은 역시 아무런 때에도 東에서 솟고、江물은 구비쳐 흘러도 마침내 바다로 드는 것이다。청년들이여、「잔꾀」를 無視하라! 고개를 젖히고 正正堂堂한 걸음으로 새 세계와 역사의 크나큰 「公路」를 걸으라!

네째、끝으로 한가지 매우 平凡하나 더 實際的인 勸言을 새 世代의 젊은이들에게도 부치고 싶다。다른것 아닌「技術」의 習得問題。

個人이나 민족이나가 잘살려면 「기술」의 鍊磨·養成、발휘·進展이 第一義的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儒敎思想의 언짢은 面만을 섭취하여 自來로 부질없이 기술을 無視하거나 等閑視해 왔음이 사실이요 그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後進性에 떨어진 것도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그래 나는 종종 여러 大學의 敎壇에서 무엇보다 「기술의 習得」을 最大限 학도들에게 强調·慫慂하고 있다。『사람은 언제 「고비」大沙漠에 거꾸로 떨어뜨려지는 일이 있더라도、곧 일어서 — 나는 나의 生을 유지할만한 독특한 기술을 몸에 지닌 것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할만한 준비와 實力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아들에 대한、또는 모든 학도들에 대한 나의 알량한 訓話이다。그런데 한마디로 「기술」이라 하여도 그 極致의 鍊磨、그 「一家」로서의 완전한 習得」은 워낙 수월한 일이 아니다。왜냐하면 最高의 「기술」은 한낱 「技術」뿐이 아니요 기실 한 「專一」한 「정신」의 産物、곧 이른바 「道」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文筆·學問생활 한平生에 늘 저 유명한 「莊子」의 「庖丁解牛」의 章을 생각하여 자신의 못미침을 反省하곤 한다 —

『백정이 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잡는데、손으로 밀치는 것、어깨로 기우는 것、발로 디디는 것、무릎으로 누르는데 있어서、또 쪼록쪼록 울리는 소리와 싹싹 칼을 쓰는 소리가 모두 音律에 맞지 않는 마디가 없어서 「桑林의 춤」에 어울리고 「經首의 장단」에 맞았다。文惠君이 그것을 보고 「허、잘도 하는구나! 재주가 대체 저렇게까지 될수 있을까?」 백정이 칼을 놓고 대답하는 말—『臣이 좋아하는 것은 「道」이온데、그것은 「기술」에 앞서는 것입니다。臣이 맨처음 소를 가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아닌 것이 없었더니、三年이 지난 뒤에는 온전한 소를 본적이 없었읍니다。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臣은 「정신」으로써 작용하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異色의 名文은 莊子가 「養生」의 妙체를 과장적으로 말한 것이나、우리는 이에서 學問·藝術을 포함한 일체의 「기술」을 터득하는 秘訣을 또한 얻을수 있겠다。우선 「처음 소를 가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소아닌 것이 없」는 境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제 專門의 對象으로만 보이는 첫 段階。그 다음 「三年이 지난 뒤에는 온전한 소를 본적이 없다」는 境地—곧 모든것이 애초부터 分析的으로 갈려 보이는 다음 段階。그리고 끝으로 일체를 「눈으로써 보지 않고 「정신」으로 작용하」는 마지막 段階。이러한 세가지 段階는 일대의 위대한 발명가、技術者、사업家、藝術人、학자、정치가 등등 진실로 자기 所業에 온 정신을 다 바치는 자가 반드시 體驗하는、또 해야 할 過程인 것이다。우리는 지금 「기술」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기술」은 먼저 반드시 「정신」을 짝해야 하며、그것을 前提的 要件으로 한다。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一家의 기술」을 習得함은 청년들에게 —현대 새世代의 젊은이들에게도 꼭 緊要한 일이라 생각된다。

〈글쓴이·文博·大學院長〉

祝 東大新聞第200號

總長 鄭斗石

大學院長 梁柱東
敎務課長 李鍾德
職員一同

佛敎大學長 張元圭

文理大學長 洪性海

法政大學長 朴商鎰

農林大學長 李昇雨

敎學處長 金炳奎
敎務課長 安益鉉
學生課長 金炳麟
職員一同

庶務處長 金尙祚
庶務課長 李喜春
經理課長 張四植
職員一同

佛敎文化硏究所所長 趙明基

圖書館長 金尙祚
圖書課長 盧宗植
司書課長 黃天午
職員一同

同窓會長 愼京勳
會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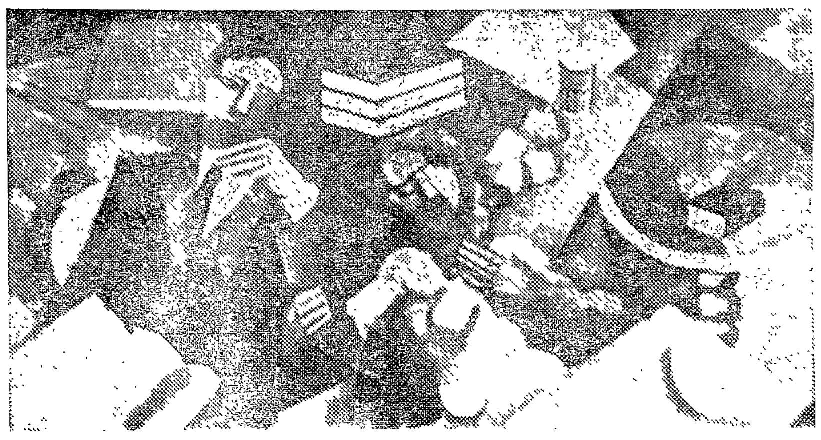
科學館監 朴奉守

農場長 金熙泰

東大構內印刷所 幹部一同

二十代는 孤獨하다。二十代는 彷徨한다。그래서二十代는反抗한다。現代라는 西歐의 엄청난 물결이 우리들의 近代를 영영 앗아가버린 風土위에 우리들의 靈魂은 孤獨에 감싸인채 彷徨을 계속하고있다。고리타분한 舊世代의 倫理觀은 무너지고、확고한 理念도 없이 새世代의「모랄」은 흔들리며 내일의 아람찬 보람을 위하여 思想의 열매로 가득채워있어야할 「씽킹·맨」의 흉중은 텅텅빈채로 아쉽기만 하다。허나 그뿐인가 崇高한「사랑」도 쫓기며 눌리며 삐뚤리게 發散되고 우리들의 反抗은 視點을 잃고있다。왜 그러고만 있는 것일까? 아쉬운대로 三十代, 四十代의「카메라·아이」에 우리들의姿勢를 담아보자。【編輯子】

彷徨하는 韓國의 二十代



韓國大學生의 氣質

=朴 商 鎰=

大學은 누구나 말하듯이 教授와 研究와 人格陶治를 사명으로 삼는 學園이다。따라서 大學生活은 그 사명을 具現하는데 充實해야하며 大學生의 氣質은 그런 사명을 追求實踐하려는 가운데 形成됨을 特質로 하여야 한다。한마디로 하여도 大學生의 氣質이라 하여도 大學生活을 보람있게 보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는 各各 그 內容이 다르게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大學의 사명인 教授·研究·人格陶治에 관한 우리나라大學의 實情을 본다면 그에 必要한 施設과 條件이 빈틈없이 具備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大學과 大學院의 現況이 教授와 研究의 皮相的 또는 名目的인 機能을 맡고있기는 하지만 實質的으로 充實하게 될려면 아직도 前途遙遠함을 免하지 못할 것이다。圖書館이나 研究室등의 施設이 갖추어지고 教職者에 대한 待遇와 研究費補助등이 大幅的으로 好轉되지 않는 한 大學이 그 사명감에 切實한 存在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現實情下에서는 大學生이 學園生活에 잠겨 特異性을 띄운 氣質을 形造하려고 하여도 期待될수 없는 形便이라고 본다。

도리켜 學生들이 놓여 있는 社會환경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오래동안 常軌를 逸脫하고 激動을 反復하여 갈데를 잡을 수 없는 版局이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소위 戰後파的 氣質을 타고난 밑바탕을 지니고 있는 판에 安定된 信念이나 確固한 人生觀을 가지려고 하기 보다는 닥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方向으로 쏠리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었다。

解放後 十七年이나 지났건만 그동안 삶음의 安定感을 느끼고 있던 階層은 別로 없었다하여도 過言이 아니다。이른바 權門勢家의 경우라도 그자리에 있음을 奇貨로 돈을 뜯어 몽아 子女의 海外留學에 專力하는 風潮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그 理由는 勿論 子女의 將來를 위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 一朝有事之時에 自己自身의 海外逃避의 根據를 닦아 둔다는 마음이 强力하게 作用하였다는데 있었음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아무일이 없으면 없는대로 좋고 무슨 例를들면 六·二五事變같은 戰亂이 再發한다면 自己의 逃亡處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子女를 海外留學시키는데 心血을 기우리던 權門勢家 族屬의 眞意였다。

台灣의 中國政府의 要人 가운데서는 權勢·致富·子女의 海外留學의 세가지를 生活目標로 삼고있는 事例가 普遍的이라고 말하는 外紙가 있었다。

이와같은 社會環境속에서는 二十代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世代치고 彷徨하지 않는 世代이 없었다 할 것이다。政治의 失敗、經濟의 停滯、法律準則의 蔑視등의 世相이 社會全體의 動搖나 人心의 頹廢를 가져오고 이것이 社會的 存在의 하나인 學園에까지 影響을 미침으로써 大學生의 氣質의 當代性에 좋지 못한 結果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었다。

말하자면 當代 大學生의、氣質은 大學이 眞正한 意味에 있어 제구실을 못하였다는 事實과 大學生들이 놓여있는 社會環境의 不安定性 까닭에 그 있어야 할 本來의 姿態에서 삐뚜러져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學問領域에 있어서 數學은 十代末에서 二十代에 걸쳐 그리고 物理學과 化學은 二十代를 絶頂으로 하여 가장 많은 研究成果를 쌓아 올릴 수 있다함은 오늘날 定說로 되어있다。

科學時代를 움직이는 學問的 原動力이 數學과 物理·化學이라고 한 것 같으면 사람의 年齡層 가운데서 어느 年齡層이 이런 學問을 工夫해 내는데 가장 適合하냐에 있어 十代末로부터 二十代를 中心으로 한 年齡層이라고 하는 結論은、보통 十代末에서 二十代는 心意未定함을 特徵으로 한다하고 한낱 그 世代를 社會로 나가는데 必要한 準備期로만 알고 있는 從來의 觀念에 대하여 重大한 修正을 加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韓國의 二十代는 國內에서는 遺憾스럽게도 그런 學問研究를 위하여 靑春을 磨滅시킬만한 餘地가 全혀 없다。科學을 위하여 靑春을 바치는 群像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大學生 氣質의 當代性을 特徵지우는 契機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韓國社會의 景況은 모든것의 發展을 가로막는 重要한 原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生命力이 또한 十代末을 絶頂으로 하여 二十代初期를 지나면서부터 衰退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定說에 속한다。이런 命題의 必然的인 歸結로써 사람의 美나 運動力을 核心으로한 온갖 現象의 最盛期가 十代末에서 二十代에 걸친다고 하게 된다。通俗的으로는 그 時期를 血氣가 旺盛하다고 말하지만 이경우의 血氣旺盛은 靑年들이 쓸데없이 지나친 일을 저지르기 쉬운 傾向을 警戒할려는 面으로 사용되는 傾向이 있고 그 內外에 아무런 積極的인 意味도 가진 言表가 못된다。그러나 生命力의 頂上이 十代末에서 二十代에 걸친다는 말은 그 時期에 있어 積極的으로 해두어야 할 有意義한 人生事가 許多하다는 것을 內包한 言表로 된다。

生命力의 最盛期에 있어 그것을 直接的인 土台로 삼는 大學生活의 또 한 面에는 大學運動競技가 [illegible] 現今 世界各國의 大學의 運動狀況을 보면 그것이 곧 그나라의 運動水準을 代表하고있다。그리고 또 運動은 二十代가 諸般社會에서 人生에 寄與하고 있는 가장 큰 分野의 하나로 되어있다。그러나 그 運動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의 學業과 兩立되지 않는다는 狀態下에 있다。앞서 말한 바와같이 大學教育의 實態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그런데도 不拘하고 運動을 한다는 경우에는 그 대단치 않은 學業과 兩立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레도 運動의 指導方法이 나쁘거나 運動精神이 잘못 되었거나 그 두 가지가 겸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運動水準의 程度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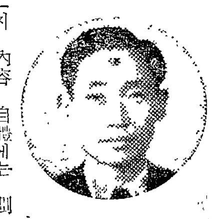
運動 좀 한다고 學業에 대한 全面的인 特典을 强要한다는 일은 海外遠征 좀 나갔다고 密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錯覺하는 것과 共通性이 있다。外國의 大學選手의 많은 例가 學業과 運動과의 兩立을 [illegible]기 좋게 調節克服해 나감을 말해주고 있다。學業도 生命力의 最盛期에 닦어 놓아야 할 일이고 運動도 또한 그것을 한때로 할수 있는 일이다。問題는 그 어느 것에 置重하느냐에 있는 것이며 둘다 抛棄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運動에 置重한다하여 特權意識을 내세운다는 것은 結局 學業과 運動을 모두 抛棄하는데 歸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줄 안다。

요컨데 二十代의 彷徨은 二十代自代에 責任이 있는것 보다는 政治와 社會에 責任이 있으며 大學生活을 통한 大學生의 氣質이 무엇이 正體인지 알수없는 內面도 또한 畢竟은 十代로부터 二十代에 이르는 時期를 無意義하게 보내게하는 여러가지 環境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면 二十代를 安定케하고 二十代의 生命力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時期가 早速히 到來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수 없다。(筆者·法政大學長)

焦燥와 不安의 暗影밑에서

=大學生의 愛情의 一斷面=

李 根 三



學生들의 體臭를 直接 맡을수 있는 젊음은 이미 지났고 그렇다고 해서 過去를 回想할수 있을만한 지긋한 나이에 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니、나에게 주어진 이 題目은 主人을 잘 못 찾아 온듯한 느낌이 든다。

解放以後、特히 六·二五動亂以來의 숨가쁜 社會變遷은 그 期間이 짧기는 하지만 우리의 歷史上 그 유래가 없을만큼 比重이 크다。政治、經濟、社會、文化等 모든 分野는 流動하는 思潮에 휩쓸려 걸잡을 수 없는 速度로 廣範圍하게 성급한 손을 뻗치고 있다。그러나 오랜 封建體制와 植民地體制에서 冬眠을 일삼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無理한 變動이었다。그래서 그런지 눈부시게 보이는 變遷이라는 것도 모든 分野에 있어 그 形式과 겉模樣만의 擴大요、彩色이[illegible]찬가지로 解放以後의 急作스러운 社會變動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實際生活은 如前히 오랜 世月을 두고 뿌리를 박고 있는「韓國的」인 要素에 큰 變動을 못주고 있다。처음보는 飮食을 입에 쓸어 넣을 수 있는 能力과 이를 消化할수있는 能力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illegible]

[illegible] 그들을 理解할수 있는 程度요、결코 完全同化될수는 없는것이다。大學生은 時代相에 銳感하다。또한 進取性이 있다。그러나 그들이 뿌리를 박고있는 社會構造며 貴族制度는 그들에게 아직껏 絶對的인 影響力을 갖고 있다。氣象台처럼 時代潮流에 銳敏하면서도 韓國的인 社會構造에서 이탈하여 [illegible] 활개를 펼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大學生이다。그間 實存哲學이 斷片的이나마 學生들의 話題를 獨占했고 요즈음의「비이트」族의 生態가 크게 紹介되었고 異常한「트위스트」的 生理가 波及되었지만 이러한 西歐的인 風潮가 어느 程度 韓國學生[illegible] 特히 男女間의 愛情에 刺戟을 주었는지 疑心스럽다。世紀를 두고 綿綿히 흘러온 韓國的인 傳統에서 그리 쉽게 발뺌을 할수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눈앞에서 走馬燈처럼 變化하는 思潮와、그들이 宿命的으로 뿌리를 박고있는「우리의 社會構造」와의 妥協할 수 없는 사이에서 우리의 學生들은 초조하게 彷徨하고 있다。社會는 學生들을 생각하고 學生들의 將來를 考慮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沒人情하다。그들에게는 將來의 約束이 없다。요지음처럼 社會諸般이 學生들에게 無關心하여 [illegible] 적도 없었다。이러한 現象은 또한 하나의 社會가 一大變換을 招來할때의 不可避한 附隨條件일런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飛躍하는 思潮와 따분한 現實構造 사이에서 아무런 約束이 없는 將來에 對한 오늘의 學生들은 참말로 自己를 理解할수있는 心情의 異性을 渴求하게 된다。초조하고 외로운 存在이고 보니 옛날처럼 結婚을 前提로 한 條件으로 愛情을 接近한다던가 또는 于先 接近이라기 보다는 孤獨感을 相殺할수 있는 意味의 異性을 直感的인 欲求에서 對한다。따라서 그들의 交際는 單순하고 假飾이 없다。애당초 交際할때부터 責任이며 將來라는 問題는 念頭에 없기 때문이다。이른바 既成世代들이 요지음 學生들의 男女交際를 가르켜 輕率하다는 말을 하는 理由도 이러한 假飾이 없고 單순하다는데 基因된다고 본다。

焦燥하게 彷徨하는 젊은 世代

時代潮流에는 銳敏하나 不自由한 社會構造

異性交際는 直感的인 欲求에서

既成의 交際의 教訓이 말하는「男女愼重性」이라는 말은 結婚을 爲한 交際、비슷한 말로 그리고 將來를 爲한 道德律에서 强調되어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요지음 大學生들에게는 그리 興味가 없는 教訓이다。옛날 젊은이들과 달라 그들은 스스로의 感情의 表示며 行動에 있어 주저하지를 않는다。느끼고 원하는 그대로의 言語와 行動을 피차 交換한다。왜냐하면 그들의 交際의 動機는 前記한 바와 같이 結婚이나 將來에 對한 約束을 前提로 해서 이루워진 것이 아니라 極히 自然的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다。不合理한 現實에서 느끼는 초조感과 將來에 對한 不安感에서 오는 直感的인 接觸이다。動機가 이렇고 보니、그들이 彼此間 愛情을 느끼기 시작하여 사랑에 빠져도 言語며 行動은 여전히 自由스럽고 假飾이 없는 것 같다。男女學生間의 愛情이며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던 옛날의「모랄」은 그들에게는 休紙조각같이 생각된다。또 하나의 特徵은 그들이 옛날과 달리 相互間의 지나친 責任을 느끼지 않는다는 點이다。相互間의 一生에 對한 責任感에 민민한 極端的인 生命을 건 行動을 자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現代版 로미오나 쥬리엣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는 말이 學生間에서 자자하다는 事實을 보다 現實的인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을런지 모르겠다。이 事實을 既成이 輕率 不誠實等의 말로 비난을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不得已한 일이다。왜냐하면 自己自身의 將來에 對해서 그들은 꾸준한 不安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또한 社會變遷에 適應할수 없는데서 오는 초조감으로 [illegible] 浪漫狂이 하는 約束과 責任을 선뜻 던질 수가 없다。좀더 現實的인 態度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學生들에게만 있는 悲劇이라고도 말할수 있다。一見、單純하고 虛飾이 없고 自由스러운듯 보이는 그들 男女의 愛情의 모습 뒤에는 이러한 초조와 말못할 不安이 깃들어 있다。

번잡한 社會에 比해 그들의 家庭은 여전히 舊世的인 頑固속에 묻혀 있다는 말은 이미 했다。그러면서도 그들은 個性을 尊重한다。自己의 個性을 白紙化해서 相對方에게 뛰어들어갈 생각은 거의 없다。그 젊은이들보다도 꿈을 [illegible] 自己의 個性과 將來에 對한 不安의 暗影에 絶望을 느끼는 그들이다。이러한 狀態일수록 心情을 吐露할수 있고 理解를 해줄 수 있는 異性을 渴求한다。그러나 그들의 外面、그처럼 單순하고 明朗한듯한 愛情과 사랑에는 일찌기 없었던 苦惱와 초조가 숨어있는 것이다。(글쓴이·文理大副教授)

二十代의 彷徨은 現社會의 不安에서

思想的 測面

自身의 生活에 對한 信念이 굳어야

洪 庭 植

사람으로서 寂然不動의 生活態度로 自身의 人格完成을 爲한 進路를 한걸음 한걸음 堅實하게 開拓하여 나아가기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修養과 知識의 程度가 高度에 이른 사람만이 可能한 일이오、修學과 修養의 途上에 있는 大學生들이 그들의 生活에서 若干의 動搖나 彷徨의 오취가 엿보인다함은 오히려 當然하다 할지언정 이를 非難하거나 甚한 叱責을 加할 일은 아니다。그러나 이 그런 不安定된 生活은 그대로 放置될 것은 아니오、어디까지나 그들의 生活속에 감도는 不安과 動搖의 原因을 究明하고 이를 除去하기에 不斷의 反省과 努力을 傾注함에 吝惜치 말아야 할 것도 再言의 餘地없는 일이다。

韓國의 二十代 學徒들이 彷徨하고 있는 原因의 하나는 現代社會의 不安相에 있다하겠고 다른 하나는 그들 自身의 生活態度에 있다하겠다。그 하나의 原因은 現代社會에 있어 不安이라 함은 現社會相의 不安狀態를 가르키는 것인데 社會의 不安은 그 根本的인 理由가 學問의 跛行的 發達에 있다하겠다。무릇 學問이란 直接的이거나 或은 間接的이거나를 莫論하고 人間生活에 對한 實用性을 暗示하거나 豫想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學問은 廣義의 實用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들 實用學이 무엇을 目標로 하는가。이는 곧 絶對生命·實現의 準備를 爲한 것이라야 한다。即 우리들의 生命을 時間的으로 더욱 오래 持續하고 空間的으로 보다 더 擴大하며 自由의 범위를 더욱 擴張하는 準備로써 絶對生命을 實現한다는 統一的 理想의 어느 한 部門을 擔當하여 發達한 것이라야 한다。그리하여 具體的으로 그 方法을 講究하는 實用科學이 있고 抽象的으로 理論을 講究하는 理論科學이 있고 理想의 方向을 確立하려는 規範學이 있는等 各部門의 分擔이 있기는 하나 要컨데 生命의 進路를 開拓하여 自己實現에 資助하려는 것에 不外한 것이다。그런데 [illegible] 科學의 急激한 發達은 모랄의 破壞 喪失하게 하고 物質萬能의 思想이 擡頭되고 이 思想의 橫暴는 모든 文化와 文明을 度外視하고 홀로 思想界에 君臨하려는 威勢를 恣行하려는 形便을 造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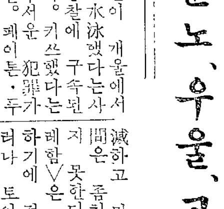
十九世紀後半부터 人類는 自然을 征服하기 始作하였고 自然을 征服하기 爲하여 여러가지 科學的 文明의 利器를 發明하기 始作하였으며 其後 繼續해서 機械文明은 長足의 進步를 이루어 現代에 이르렀다。機械의 發明은 人間의 自然에 對한 勝利를 意味하는 것이오、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들 自身의 自由와 權利의 幅을 넓히여 보다 더 幸福스러운 生活의 當爲가 可能하게 되었으며 機械文明의 發達은 人類生活의 向上을 뒷받침하는 女神처럼 모든 사람들의 羨望의 적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새로운 機械의 出現은 恒時 拍手와 같은 歡呼聲 속에서 歡迎되었고 機械文明과 合作하므로써만 理想世界의 實現可能을 確信하기에 조금도 躊躇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期待는 무너지기 始作하였으니 即 高度의 機械文明은 人間自尊의 個性을 짓밟기 始作하였으며 人間으로서의 自覺을 喪失하게 하였고 個個人의 創意性 發輝의 길을 가로막고 말었다。그러나 機械文明의 進步는 이에 끝이 아니오 及其也는 새로운 機械의 登場이 歡喜의 拍手와 갈채로 人類社會에 歡迎되기는 커녕 恐怖와 驚愕으로 이를 맞이하여야만 하는데에까지 이르른 것이다。人類社會의 福祉向上에 이바지 되어야할 科學文明은 그와는 反對로 人類歷史를 抹殺하고도 남을 威力을 所持한 破壞武器로 變貌하기에 이르러 現代社會의 不安과 動搖의 가장 큰 原因을 造成하기에 이르른 것이다。現代人은 高度한 機械文明의 惠澤으로 前代에는 想像조차 할수 없었든 程度의 人生欲求를 充足시키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前代人들은 神通奇蹟으로밖에는 空想할 수 없었든 일들이 無數히 眼前에 그 壯觀을 展開하고있음은 實로 人類社會를 爲하여 限없이 多幸한 일이기는 하나 同時에 現代의 悲劇의 씨가 또한 이로 因하여 扶植되었음도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이다。現代文明의 不調和는 全部가 이러한 矛盾으로부터 陷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意味에서 眞理를 驅使하는 知識人들의 基本姿勢의 再檢討가 要求된다。現代에 있어서 學問은 專門的으로 分化하여 漸次로 學者는 自己가 選擇한 一部分을 研究하여 다른것을 돌아볼 餘地가 없는 形便인데 이는 確實히 學問의 發達을 가져오는데 있어 不可缺의 方法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그러나 學問의 根抵에 놓여져 있는 最高의 意義를 忘却하기 쉽고 따라서 絶對的生命 實現에 寄與하기는 오히려 正反對의 效能만을 가져오는 弊害를 免하기 어려운 難點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지나치게 分裂된 文化와 學問이 現代의 危機를 造成하였고 不安의 根源을 이루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그러므로 學問의 部分的 研究는 크게 獎勵되어 마땅하면서 그 背後에 숨어있는 學問의 全體的 意義를 살피고 그리하여서 모든 學問의 最高標的을 恒常 喪失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하겠다。이렇게 함으로써만 學問의 跛行的 發達로 因한 恐怖現代社會의 不安과 危機克服이 可能할 것이며 社會的不調和의 解消로써 彷徨하는 젊은 이들의 安住할 터전도 마련될것이 아닌가。

둘째로 彷徨하는 原因은 自己自身의 生活에 對한 信念의 薄弱에 있다 하겠다。[illegible] 事大의 劣等意識으로 깊은 뿌리를 박고 있음에 因由함이겠고 다음은 浮華된 生活態度라 하겠다。前者는 先進文化에의 追從을 程度로 삼는 나머지 自我를 創意性이 萎縮되어 忘失하게 될것이며 後者는 호랑나비와 같이 爛만한 꽃을 쫓는 眞理의 世界를 一定한 目標에 定着하지 못하는 緣由로 또한 自我를 忘失하게 [illegible] 人生觀 倫理觀等의 問題가 있음을 發見할 것이다。[illegible] 宗教的 世界觀과 信念의 形成을 同伴하는 生活 [illegible]

人間은 宗教的人生觀 確立에 依하여 精神生活全體의 大轉向을 가져오게 되고 비로소 苦樂以上의 大滿足과 眞僞以上의 大確信 그리고 動靜以上의 大自由를 얻어 絶對的 解放의 境地에 到達할 수 있는 境地라는 것이다。이러한 解脫境은 宗教에서는 所與의 理想境이 아니고 當爲의 實現境이며 永遠의 安定을 實現하는 創造開拓의 境地이며 이를 實現하지 않고서는 一片의 圖案畵中之餅에 不足한 것임을 알어야 한다。宗教에서는 解脫을 論議한다。希臘哲學에 있어서 그러하고 基督教 또한 解脫主義위에 建立된 것이며 近代에 있어서도 많은 哲學者들이 이를 主張하고 있으나 해탈思想의 本故場은 亦是 印度라 할 수 있겠다。[illegible] (글쓴이·佛教大學教授)

大學生과 社會參與

=李 哲 範=



(一)

20代 하이틴! 그들은 흡사 울타리속에 갇혀있는 맹수들과도 같다。괜히 분노하고 우울하고 이유없이 反抗하는 그들。그들의 고뇌、고독과 加熱하는 육체는 안으로만 소용돌[illegible]서 응고하려는 그것들이라 하겠다。그것이 하나의 表現된 形態를 갖고 밖으로 [illegible] 무엇인가의 創造를 어루만지려고 애쓴다。안에서 뒤끓는「것」들이 하나의 理念이나 行動속에 용해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만 自爆하고 만다。불은 언제나 타는 불。그 안에서 언제나 하늘 높이 솟아나기를 바란다。人間은 누구나 할것없이 自然一속에서 사는 동시에 —歷史— 속에서 살게된다。[illegible] 그곳엔 人間의 慾求를、그 욕구의 실현을 막는 社會가 있기 때문이다。거미줄 같은 [illegible]

社會參與는 知性의 自由속에서

분노、우울、고독한 젊은 反抗者

[illegible]「하이틴」들이 개울에서 벌거벗고 水泳했다는 사실로서 경찰에 구속된 일이 있다。[illegible] 〇〇大學의 그리하여 그들은 一싸이드·카一를 타고 [illegible] 現代文明은 死 [illegible] 世界는 점점 심각한 [illegible]

[illegible] 한狀況에서 자랐으며、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또 學生生活과 社會參與라는 二律背反을 어떻게 걸머지고 있는것일까。

(二)

六·二五動亂이 일어났을때 지금의 二十代(十歲)안팎의 소년들은 철없는 개구장이였다。컴뮤니즘이 무엇인지、데모크라시가 무엇인지、봉건사상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道德이 무엇인지 다만 家族들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自己의 어버이 친척이 총탄에 학살되는 것을。[illegible]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주검을。그리고 조국을 지키는 용사와 [illegible] 카타필라의 [illegible] UN軍。그리고 戰爭속에서 [illegible] 戰爭의 現實은 언제나 [illegible] 어버이를 잃고 孤兒가 된 [illegible] 小學校나 中學校를 [illegible] 少年들은 그 당시 十代의 秩序를 잃고、이미 感情과 思考를 버리고 어른들의 世界로 뛰어들었다。[illegible] 無法地帶에서 [illegible] 學校라 [illegible] 學問을 배웠다。[illegible] 存在理由를 찾고 있었다。

(三)

이제 그들은〈世界의 廣場〉에 나섰다。亞細亞的 後進性이 무엇인지、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이 무엇인지 그리고 共産主義가 무엇인지 意識하기 시작했다。實存主義·아메리카니즘、封建的諸要素가 한곳에 混合되어 있는 社會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意識하면서、後進性의 歷史를『自由와 進步』에의 歷史로 運轉해야 할 意志를 느꼈다。〈四·一九〉는 最初의 反抗이었다。그 反抗은 民主主義라는 이름밑에서 歷史의 發展을 막고있던 獨裁的 權力에 대한 否定이었다。그 否定은 知性의 批判과 行動의 結果였다。어디서 그와같은 行動이 생겼을까。〈싸이드·카〉로 달리고 싶은 行動。한때 마음대로 멋대로 行動했던 冒險心。그런것이 한歷史를 뚫고 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에겐 勇敢한 行動은 우리의 젊은 缺如되어 있었다。소극적이고、비굴하고、아부하던 習性을 몽땅 내버리고 싱싱한 行動이 封建的 病弊를 박차기 시작했다。그러나〈四·一九〉의 行動은 보다 깊은 知性을 要求하고 있었다。하나의 理念을 갈망하게 되었다。〈四·一九〉의 行動은 다소 허영심과 英雄心을 자극했고、〈大學에서의 研究〉보다는 빨리 社會人이 되기를 원했다。「大學의 政治科」를 거치지 않고 빨리 政治家가 되기를 원했다。여기에서 大學生과 社會參與의 심각한 문제가(특히 후진국에 있어서) 일어났던 것이다。우리의 二〇代는 精神보다는 肉體로 行動을 맛본 사람들이다。그들이 十代에 있어서 學校에서 보담 社會에서 그리고 大學生〈四·一九〉로서。그러나 진정한 意味에서의 社會參與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역시「大學」안에서〈밖〉에서가 아니라 學의 캠파스 안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느끼는 知性의 自由하에 굴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大學〉이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大學〉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옥스포드、켐브릿쥐는 英國의 기둥이다。모든 것이 다 썩는限이 있더라도、무너져가는 限이 있더라도〈大學의 知性과 自由〉만은 무너지면 안된다。끝끝내 研究室을 지키는 교수가 있어야 하고、學問을 붓잡고 血鬪하는 젊은이가 있어야 했다。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現實속에서 그것이다。大學은 社會속에 있다。한나라의 社會가〈大學〉이라는〈信念〉과〈眞理〉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또 大學生은 社會와 學校를 드나들게 된다。그러나 냉철한 知性、용감한 行動。그것만은 學生의 것이다。언제나 냉철한 知性、용감한 行動속에서 스스로 存在理由를 찾는데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우리 歷史는 무엇인가、〈自由·實存의 길〉로 바뀔것이다。침울한 민족의 世界의 흐름속에서 [illegible] 志에 깊이 뿌리박은 채 그 길을 밝혀야 한다。그때 진실로 역사에 참여하는 뜻을 인식하게 될것이다。(글쓴이·同門·韓國文協評論分科委員長)

야스퍼스著 申一澈譯 悲劇論 絶讚販賣中
「야스퍼스」는 二十世紀의 위대한 哲學者요 西獨實在主義哲學의 代表的인 巨頭이다 특히 本書에「야스퍼스」는 現代의 苦惱를 탐구하고 人間의 悲劇的인 面을 인활하게 갈파하였고 새로운 휴머니즘의 길을 모색하여 現代人의 피와 살이 되는 참다운 理性을 찾는 길을 제시한 名著이다.
럿셀著 現代의 苦悶
現存하는 二十世紀 最大의 哲學者인「럿셀」卿이 現代의 苦腦를 가슴 사무치게 解剖한 哲學的인 時事評論.
新潮文化社 供給處 韓國出版協同組合

輿論調査풀이

出口없는 20代의 休日

※※※※※※※※※

오늘날처럼 人間世界가「메카니즘」해진적은 일찌기없었다。時時刻刻복잡다난해지는 狀況속에서 人間에게休息이 없다면 우리들의 生活은 얼마나 無味乾燥할지모른다。休息이라면 每日 取하는 수면도 있지만 生活속의 休息은 말할것도없이 休日이다。이休日을 어떻게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生活度가어떤가를 알 수 있다。이에 本社에서는 二十代가休日을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를 타진해보는 여론조사를 實施하였다。五二〇名을 相對로한이 輿論調査結果를 여기 묶어 본다。

※※※※※※※※※※※※※※※

피곤한 心身을 마음놓고 기대일「벤취」하나 제대로 못가진 우리네 形便이요、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감미로운 音樂、한曲 들을만한「싸롱」을 못가진게 우리네의 經濟事情이라、이에 休日을 어디서 보내는가가 참으로 궁금할 수 밖에 없다。休日은 대개 어디서 보내느냐는 첫번째 設問의 反應에서는 이런 우리의 社會、經濟相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休日은어디서?

①圖書館에서…四〇名

②劇場에서…三二名

③뮤직·홀에서…三〇名

④茶房에서…二二名

⑤당구장이나 기원에서…二〇名

⑥郊外에서…八八名

⑦집에서…二九六名

總應答者 五二〇名

가운데서 五七%에 해당하는 二九六名이 대개의 休日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이것은 일찍 보면 매우 健全한 것도 같지만 活動性이 결여된 休息이고 無氣力한 休息에 빠져버릴우려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으로 郊外에서 보내는 사람이 三四%에 해당하는 八八名으로 活動性있고 시원스런 休日을 즐기고 있다。每日은 안되지만 休日에라도 郊外의 시원스런 風景속에 묻혀 지내는게 얼마나 시원스런 일인가。그런데 남들은 郊外로 뮤직·홀로、劇場으로 休日을 즐길때에도、圖書館에서 讀書三昧의 境에 취해 있다는 사람만도 四〇名ㅣ。全體의 八%나 된다。

이 圖書館과學生들에게 休日이란 實力養成 學術硏究의 絶好의 찬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이런 學生들앞에「二十代의 休日풀이」를 내놓았었으니、「休日이 나와 무슨 相關이며 나에게 무슨 休日이 있느냐」고 호통을 칠것만 같다。

그다음으로는 劇場에서 보낸다는 사람과 뮤직·홀에서 보낸다는 사람이 똑같은 三十二名으로 六·五%ㅣ。映畵觀覽과 音樂鑑賞은 꼭 休日을 擇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예 담을 쌓고 있는거나 아닐지? 休日을 茶房에서 보낸다는 청승맞고 따분한 사람은 單 두名뿐으로 저으기 多幸스런 일。허나 茶房出入이 學生들의 茶飯事라는 것은 숨기지 못할 일이 아닐까。

休日은 누구와함께?

①愛人과…五六名

②親舊와…一一〇名

③家族과…七二名

④크럽의會員과……一八名

⑤혼자…一九六名

休日은 대개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를 묻는 設問에서 나타난 反應은、男女의 交際가 別로 活潑치 못하다는 것을 斷的으로 말해주고 있다。普遍的 見解로서는 대개의 二十代는 戀愛를 하고 있으며、또 休日은 愛人과 함께 즐길거라는 생각들이지만 休日을 愛人과 함께 지낸다는 사람은 五十六名으로 一一%밖에 안된다。愛

와 함께 보내는 型은 一一〇名。二三%에 해당하는 社交型이고、九二名으로 家族과 함께 보낸다는 家庭生活型이 一七%、그리고 大學生活에서 높은 比重을 차지해야할「클럽」活動의 會員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은 不過四%에 해당하는 一八名으로「클럽」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學生數가 적다는 것을 斷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獎學生의 榮光도 問題없을듯!。消費치고는 浪漫的인 것이니까。그러나 劇場에、茶房에 가고、뮤직·홀에 가겠다는 사람은 극히 少數밖에 없다。이것은 흔히 대로 二十代는 社會에서 不애하는 오락을 즐기고 일삼는다는 惡評과는 달리 健全한 浪費를 하는 二十代의 生態를 雄辯으로 證明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人과 함께 지내고 싶어도 時間的、經濟的 餘裕가 없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긴 하나 二十代의 愛情與件 같은 것을 돌아볼때엔 五十六名이란 數字도 과분한 셈이라고 해둘까? 그리고「나 혼자만이」休日을 보낸다는「孤獨」한 사람」들은 意外에도 一九六名이나 되어 全體의 三八%를 차지하고 있다。家族도、親舊도、사랑도 멀어져서 斷然「나 혼자만이」休日을 보내는 二十代의 姿勢가 어떠할까? 혼자 思索하고、혼자 讀書하며 사랑도 혼자만 하는 짝사랑일지도 모른다。허나 혼자만의 休日은 어딘가 애처롭고 孤獨해 보이는 反面、무인가를 잉태할것만 같은 믿음이 간다。親舊

思索하는 時間속에 出口摸索

大部分이 돈없어 멍든休日

걸걸한「대포」에 浪漫을 담고

講義가 끝나면 어느곳을 먼저?

①圖書館에…九六名

②茶房에…一四名

③劇場에…一二名

④뮤직·홀에…一〇名

⑤당구장에…二名

⑥기원에…四名

⑦대포집에…五二名

⑧집에…三二八名

平常時 學校講義가 끝나면 어느곳을 먼저 가겠느냐는 設問의 反應에서도 學究熱에 熱中하는 圖書館파는 역시 圖書館으로 곧장 가겠다。圖書館파의 數字는 休日의 圖書館파의 倍를 차지하고 있으며、어디를 둘러봐야 갈만한 곳이 없어서「집에 가겠다」는 무려 三二八名、六三%를 넘는가 극히 素朴한、그리고 比較的 健全한 경향이 압도적이다。다만 平常時에 講義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고 있는지、아니면 만理由라도 있는지 알수가 없다。젊은이 다웁게 講義가 끝난 후 곧장 한목을 추기기 위해「대포집」으로 달려가 술마시는「酒太白」君도 一〇%에 達하는 五二名으로 學問도 情熱과 氣分으로 한다면

講義以外 어떤時間을 가장즐기는지?

①思索하는 時間…一五四名

②鑑賞하는 時間…五〇名

③술 마시는 時間…三六名

④사랑을 속삭이는 時間…四二名

⑤오락을 즐기는 時間…五二名

⑥讀書하는 時間…九八名

⑦그럭저럭 보내는 時間…八二名

講義를 듣는 時間以外의 時間中에서 어떤 時間을 가장 즐기느냐는 設問의 反應에서는 思索하는 時間을 가장 즐긴다는「싱킹·멘」이 斷然 首位로 一五四名。三〇%에 達하고、苦悶하고、그리하여 思索하는 젊음을 充實하게 살찌우는 二十代의 姿勢가 그대로 눈물겨운 風景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빠스깔」이 말했던가、思索을 通해 살찐 思想과 人生위에 우리들의 來日은 보람찬 것이 約束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數는 역시 讀書를 즐기는 時間이 九八名이다。이들은 總數의 一九%를 차지하고 있는데 總體的으로 본다면 요즘의 大學生은 比較的 讀書에 熱中치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演劇이나 映畵、그리고 美術品과 音樂을 鑑賞하는 時間을 즐긴다는 學生은 五〇名으로 約 一〇%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敎養面에

그리 많은 關心을 기울이지 않는 二十代의 斷面圖일지도 모른다。그리고 娛樂을 가장 즐긴다는 學生도 五二名으로 같은 十%를 차지하고 있고、사랑을 속삭이는 時間을 즐긴다는「억세게 재수좋은 사나이」와「억세게 재수좋은 아가씨」들도 相當數를 차지하여 四二名으로 八%。그만치 分明「속삭인다」했으니 혼자일리는 없을게고。

그런데 이 設問의 反應中에서 재미있는 것은「그럭저럭」보내는 時間을「二十代」가 무려 八二名으로 三一%를 차지하고 있는 點이다。讀書하자니 벅차고、思索하자니 귀찮고、사랑을 속삭이자니 愛人도 없고、술마시자니 괴롭거니와

고 娛樂을 즐기자니 狀況이 너무 切迫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보내는게 가장 즐겁다는 表現일까?「萬苦風霜」다 겪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만 같다。

休日을 못 즐기는 理由는?

①돈이 없어서…二一四名

②愛人이 없어서…九四名

③時間余裕가 없어서…一一八名

④場所가 없어서…二六名

休日을 즐기지 못하는 理由가 있다면 왜 즐기지 못하는가를 設問한 中에 우리네의 經濟相이 그대로 나타나 反映되고 있다。첫째로 四一%나 되는 二一四名이 돈이 없어서 休日을 즐기지 못한다고、애절하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우리들의 經濟事情은 마음껏 休日을 즐길만큼 余裕가 없는게 숨길수없는 事實이다。그만큼現代人의 生活은「맘몬」이 支配하고「맘몬」에 依해서 움직이며「맘몬」에 依해 現代人의 안타까운 構圖가 짓밟히고 있다。「돈이 없어서ㅣ」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쓸쓸한 告白이냐。그리고 大學生들의 反應은 얼마만큼 돈에 쪼들리고 있는가를、돈에 神經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切實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그다음으로 二三%에 해당하는 一一八名이 時間의 餘裕가 없기 때문에 休日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여기서 時間의 餘裕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工夫때문에? 아니면 알바이트?

愛人이 없어서 休日을 즐기지 못한다는 二十代도 자그마치 九四名으로 全體의 一八%。休日이란 意味마저 잃어버린다는 絶望的인 思考 때문인가。愛人이 아니면 休日을 즐길 수 없다는 悲觀論에서 일까。아무튼 愛人이 없어서 休日을 즐기지 못할만큼 戀愛를 못하고 있다는걸 確認했으니 二十代가 戀愛못한다고 悲觀까지는 안해도 좋을듯하다。다음으로 場所가 없어서 休日을 즐기지 못한다는、一〇%에 達하는 二六名으로 유원지나 변변한 公園施設이 없는 우리네의 社會환경을 指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싸롱」이 없는 집에 對한 은근한 不滿을 널어놓는 것은 아닐까?【B】

菩提樹執筆者의辯

32號「宗敎의目的」이 첫出發

쉽게풀어 佛敎眞理깨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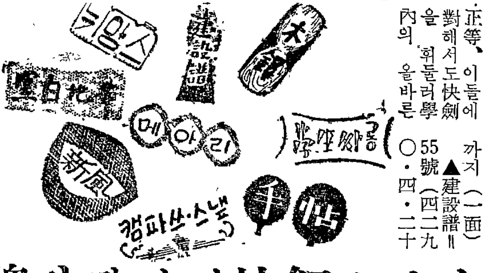
도리켜보면 지금으로부터 七年前인 一九五六年四月二十五日付로 發刊한 本報第三十二號에 週間敎養講座를 新設하고「宗敎의 目的」이라는 題目으로 涅槃에 關한 佛敎術語를 解說한 것이 現在「보리수」前身의 出發이다。이어서「佛敎音樂의 偉大性」이라는 題目下에 梵鐘을 紹介하였고 繼續해서 十數回를 거듭한 다음에「보리수」라 改題하고 二百字 原稿十枚에서 六枚로 大幅주리고 알기쉽게 풀어쓰는것을 根本方針으로 삼았다。그때는 執筆者를 秘密에 부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그러나 事實은 安啓賢 敎授와 筆者 두사람이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執筆하였다。눈치빠른 어떤사람들은 直接「菩提樹」執筆者가 누구냐고 물음을 받았다。그러나 시침을 딱 떼고 모른다고는 하면서 속으로 얼굴이 뜨거워 진땀을 禁하지 못하였다。지금 생각하면 무슨 理由인지도 모르게 웃으운 생각이 나며 그때와 같은 수집음이 아쉽기도 하다。安敎授가 쓴글은 알기쉽고 興味가 있으나 筆者의 것은 딱딱하고 어려워서 理解하기가 困難하다는 것이 그當時 讀者들의 쑥덕공론이었다。한번씩 차례가 닥쳐오면 文學공부 못한 것을 後悔하였고 學生時節에 ○○하다못해 日記라도 부지런히 써서 文章力과 表現力을 다듬어 두었드라면 하고 한숨짓기도 하였다。그러는 사이에 光陰은 흐르고 흘러서 여러번 編輯責任者도 바뀌어지고 지루한 생각도 들고해서 두사람은 손을 떼고 다른 분에게 넘겼더니 뒤에 알고보니 이제는 幽明을 달리한 朴春海敎授께서 수고를 하셨다 한다。그러던中 今年봄에 새學期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筆者에게 請託이 왔다。사양하다가도 처음에는 구지 사양할 생각이었으나 이 새學期만이라는 條件附로 손을 쓰게된 것이다。그래서 새삼 붓을 들고 보니 감개무량하였고 저윽이 근심이 되었으나 그때 勇氣를 내서 한참 世人의 耳目을 끌고있던「比丘」의 定義에서 着手를 하고 새氣分으로 出發하는 意味에서「보리수」의 解題를 부쳐보았다。그다음부터는 그때그때 보고 느낀대로 그려보았으나 어느새 二十回가까이 거듭하였고 여름放學도 迫頭하여 처음約束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하니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간다。그러했지마는 처음에도 이번에도 대강이나마 體系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한번은 부처님에 關한것을 쓰고 다음에는 敎理에 屬한 術語를 풀어서 알기쉽게 說明하고 그다음에는 高僧이나 敎團內에서 일어난 事件이나 또는 佛敎文化財紹介等의 順序로 되풀이 하였다。한篇한篇이 獨立的이면서 一貫된 統一性이 있게 하느라고 努力은 해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 散漫에 흐르고 말았다。오랫동안 前後해서 執筆하는 사이에 가장 苦痛을 느낀것은 誤植이 빚어낸 讀者들로부터의 오해이었다。누구의 編輯責任이라 말할수는 없다。時節이라 한때 너무나 오식이 많아서 執筆者들을 곤궁에 빠지게하였다。「보리수」만하여도 五、六枚한篇에 甚할때에는 十餘字 오식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일이 아닐수 없었다。때로는 原稿가 잘못된양으로 辛辣한 質責을 當하였고、쓴 辯明도 하였고、即刻 손을 떼려고도 하였으나 무슨 因緣이였는지 꿀꺽 참고 또 참고하였다。그뿐아니라 사사로운 일로 因해서 제때에 쓰지 못하고 新聞을 늦게 나오게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그때의 송구스러움은 當해보지 못하고는 理解못할것이다。그러나 때로는 快感을 느낀적도 있었다。언제인가 編輯事情으로「보리수」欄을 中斷한적이 있었다。이때에 意外에도 많은 讀者들이 繼續을 要請하였던 모양이다。그 얼마後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마는「보리수」의 愛讀者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혼자 기뻐하였으며 自慰하고 勇氣를 얻었다。그뿐아니라 호되게 추운날 따끈한 茶한잔、봄 가을에 왕대포한잔、무더운 여름날에 冷맥주한잔이 친한사람들과 더부러「보리수」값으로 즐길수 있다는것은 執筆者에게「보리수」가 魅力的存在가 아닐수 없었던것이다。그동안 筆者의 分만해도 六十餘回를 헤아릴수 있게 되었으나 어느때 한번이고 自信있게 내놓은 글은 적이 없음을 告白하지 않을수 없다。언제나 時間의 督促을 받고 마지못해 총총히 끝내고보면 어디인지 허전하고 自身의 無能을 暴露한 尺度같기도 하고 이책 저책 뒤적거려서 남의 낱말 몇줄을 羅列해 놓고 보면、더욱 良心의 可責을 받곤하였다。이와같이 얼키고 쌓인 曲折을 간직한 本報紙齡二百號를 祝賀하고 記念함에 즈음하여 執筆者의 辯이라해서 過去之事를 들쳐내느니 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보리수」를 通해서 自我를 反省하는 機緣이 되고 참된 삶을 營爲하는데 널끝만치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世評이 붙은 佛敎를 쉽게 理解하는 因緣이 된다면 이보다 더할 것은 없는 것이다。끝으로 東大時報의 紙齡과 아울러「보리수」가 年輪도 쌓이고 무성하여 열매가 맺어 누리를 뒤덮고 大東의 健兒들의 安息할 그늘이 되며、智慧光明의 보금자리를 얻는 터전이 되기를 손모아 빌어 마지않는다。쓰고 보니 가장 要緊한 것을 빠트리고 말았다。「보리수」欄을 創設하기는 金鎭福敎授가 編輯責任을 맡은 時節인데 追憶을 公開해서 回想케 하는것도 編輯責任敎授의 因緣이 무슨 因緣인지 알듯하면서 모를 일이라는 것을…

（佛大敎授·禹貞相）

고시프年譜

本報가 創刊되면서부터 언제나 讀者와 같이 있어왔고 또한 가장 愛讀된 固定欄을 들추자면「고시프」(Gossip)을 먼저 빼놓을 수 없다。第24號(四二八八年)의「木鐸」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建設譜」「學生싸롱」「뉴앙스」「黑白地帶」「캠퍼스내프」「手帖」「메아리」갖가지 이름을 가져온「고시프」는 채 記事化되지 않은 大學社會의 裏面의 이모저모를 들춰내어 讀者들 앞에 讀者들의 正當한 批判을 받게하고 또한 學生들의 숨겨진 아름다운 얘기를 캐내어 眞·善·美의 본보기를 社會에 提示하기도 했다。

"Gossip"은 大學의裏窓



이처럼 늘상 讀者와 함께 呼吸해온「고시프」는 역시 不正、不義、不等에 對해서도 快劍을 휘둘러 學內의 올바른 與論을 造成하기에 旗手가 되어왔을뿐아니라 젊은 知性들의「生命」으로서 指稱되어왔다。以下 그 年譜를 살핀다。

(四二九〇·四·九日字)까지(一面)

▲建設譜‖55號(四二九〇·四·二十九)～58號(四二九〇·六·十八日字)(二面)

▲學生싸롱‖五九號(四二九〇·七·一日字)～一二四號(四二九三·三·三日字)(三面)

▲뉴앙스‖一二五號(四二九三·四·三〇日字)～一四〇號(四二九三·十·十五日字)(四面)

▲黑白地帶‖一二六號(四二九三·五·七日字)～一四六號(四二九三·十一·二六日字)(一面)

▲캠퍼스내프‖一四七號(四二九三·十一·二九日字)～一四七號(九三·十二·十日字)(四面)

▲手帖‖一五六號(九四·五·八日字)～一六四號(九四·九·四日字)(四面)

▲新風‖一六五號(九四·九·十一日字)～一七三號(九四·十一·七日字)(四面)

▲메아리‖一七五號(九四·十一·二十一日字)～오늘에 이름

【컬·二百號에 이른고시프들】

門牌바꿔면서快劍은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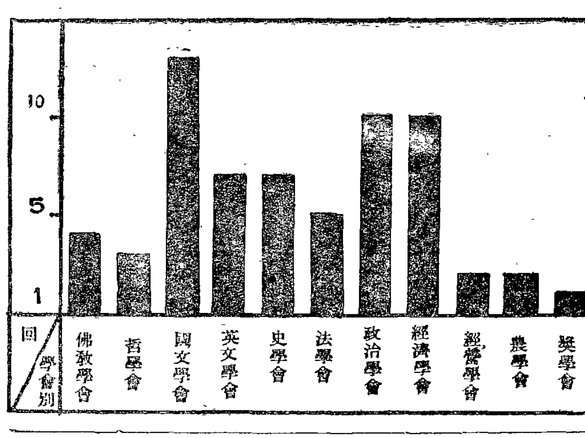
本報에비친 學會活動의흐름

그 日誌를 엮으면서

○…學會는 會員의 研究意慾과 그 發表의 廣場이다。敎科를 더욱 深化擴大하면서、理論을 生活化하는 一部理論과 實驗實習을 並行하는 自然系보담은 人文系傘下의 學會行事가 빈번히 벌어지는 것도 그 까닭이다。

지난 十年間ㅣ。그것은 韓國의 여러大學이 大學으로서의 內的 規模를 갖춘 過程이었다。특히 學生自治活動의 媒介體인 學會活動의 展開에 있어서 그러 했다。

○…紙齡 二百號를 맞아、昨年末(一八二號)까지 本報에 反映된 活動狀況을「學會日誌」라고(廣告欄參照) 추려 紹介한다。勿論 研究의 延長이라고 하기에는 그 內容이 빈약한 것도 많았다。이런 것들은「日誌」에서 除外키로 했다。이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佛敎學會는 佛敎精神의 宣揚을 위한 佛敎講演會와 學術講演會、그리고 古蹟踏查및 資料展示會등이 그 重要活動이었다。特히 陰四月初八日의 佛誕日 前後는 學會活動의 크라이막스가 되었다。靜的이기 보담 動的인 것을 指向해 온 同學會는、그러나 全國放學期間이 되면 巡廻布敎講演會도 마련하여 왔다。

○…한편 哲學會는 東洋哲學 중에도 佛敎哲學을 그 核心으로 이루어온 佛敎哲學研究에 置重해왔으며 그 行事도 佛敎學會와의 共同主催로 佛敎學術講演會、研究發表會등을 해왔다。

○…「東大」가 韓國文壇에서 獨步的이며 唯一한 位置를 確立시켜온 國文學會의 産室이다。지난 八年間만해도 그 門을 거쳐나간 現役文人이 30餘名에 達하여 그들의 在學時 文學活動은 실로 눈부신것이었다。「文學의 밤」은 春·秋二回에 걸쳐 열리고 學術講演會와 群少同人活動은 그 類例를 찾을 수 없을만큼 多彩롭다。

○…研究發表會와 外國人著名學者招請강연회등의 영문學會는 各科對抗英語雄辯大會등으로 學究意慾을 돋구어 왔다。그리고「영문학의 밤」「래틴·뮤직의 밤」등으로 會員間의 親睦과 研究熱에 더욱 拍車를 加해왔다。

○…史學會는 會員間의 研究發表意慾이 旺盛하며 每年古蹟踏查와 그 蒐集資料의 展示會도 重要視한다。그리고 著名學者의 招請강연회도 잦으며「東國史學」의 每年發刊은 他科보다 質的向上을 꾀하는 契機가 되고 있다。한편 生物學會는 動植物採集이 그 重要활동의 하나이고 리大의 自然系其他는 實驗實習을 通한 實力鍊磨에 主力하여왔다。

○…法學會의「模擬裁判」은 國文學會의「文學의 밤」과 함께 傳統있는 行事의 하나이다。高試特講을 通한 會員의 體系있는 學究欲增進도 重要視해왔지만、亦是 模擬裁判을 前後한 움직임이 가장 자극的이다。이에 比하면 政治學會는 政治講演會、雄辯大會、模擬國會등으로 多彩로운 활동이 언제나 있다。가을철이면 連二·三日間에 걸쳐벌어지는 全國男女高等學校對抗雄辯大會가 조용한 大學街에 한층 熱氣를 뿜는다。

○…經濟學會는 每年 全國農家經濟實態調查를 비롯하여 學術講演、심포지우므등으로 異彩를 띄운다。그리고 商學會와 經營學會와의 共同主催로 열려온「全國女中高 珠算競技大會」는 많은 人材들을 發掘해 내고 있어 定評이 있다。또한 經營學會의「模擬株主總會」도 理論의 生活化란 見地에서 높이 評價되는 것이다。

○…農林大의 各學會는 放學이 되면 農漁村復興에 獻身하는 것이 重要事業이며 其他 農村實態調查를 通한 農村復興策의 課題로 摸索이 다루어졌다。그들의 實習은 大學附屬農場과 演習林野에 隨時로 動員되어 하고 있으며 植木日을 前後한 造林作業은 年次計劃대로 잘 進行되고 있다。

各學會別활동 回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法學會‖五

▲政治學會‖一〇

▲經濟學會‖一〇

▲經營學會‖二

▲國文學會‖一三

▲英文學會‖七

▲史學會‖七

▲佛敎學會‖四

▲哲學會‖三

▲農學會‖二

▲獎學生會

菩提樹索引

—〈第五十七號—一八二號〉—

第五十七號·歸依三寶
第五十八號·慈藏律師
第五十九號·聖母摩耶夫人
第六十號·圓測法師
第六十一號·菩提
第六十二號·慧超
第六十三號·大藏經
第六十四號·法會
第六十五號·四門遊觀
第六十六號·極樂世界
第六十七號·三法印
第六十八號·僧官
第六十九號·太子出生
第七十號·會三歸一
第七十二號·四체
第七十三號·四恩
第七十四號·八正道
第七十五號·八相成道
第七十六號·三世
第七十七號·미勒
第七十八號·四法界
第八十號·太子苦行
第八十一號·劫
第八十二號·三學
第八十三號·寫經
第八十四號·伽藍
第八十五號·元曉大師
第八十六號·安居
第八十七號·均如
第八十八號·諸惡莫作
第八十九號·香
第九十號·十方世界
第九十一號·藥師如來
第九十二號·三論
第九十三號·道楞嚴經
第九十四號·結集
第九十五號·四天王
第九十六號·慈悲
第九十八號·蓮華
第九十九號·信·解·行
第一〇〇號·人間과거북
第一〇一號·布施
第一〇二號·摩尼
第一〇三號·燈明
第一〇四號·十大弟子
第一〇五號·五蘊
第一〇六號·阿含十二
第一〇七號·木鐸木魚
第一〇八號·王舍城의悲劇
第一〇九號·阿羅漢
第一一〇號·六通
第一一一號·孟蘭盆
第一一二號·世界
第一一三號·雲水
第一一四號·五臺山
第一一五號·俱舍論
第一一六號·維摩
第一一七號·阿彌陀佛
第一一八號·公案(話頭)
第一一九號·觀世音菩薩
第一二〇號·地獄
第一二一號·達磨
第一二二號·禪定
第一二四號·勝만夫人
第一三五號·阿閦佛
第一三六號·普賢菩薩
第一三七號·文殊師利菩薩
第一三八號·地藏菩薩
第一三九號·大勢至菩薩
第一四〇號·藥師如來
第一四一號·虛空藏菩薩
第一四二號·三毒
第一四三號·三法印
第一四四號·三界
第一四五號·三學
第一四六號·三愛
第一四七號·三惡行
第一四九號·三歸依
第一五〇號·三業
第一五一號·三密
第一五二號·三時
第一五三號·三惑
第一五四號·波羅門敎와佛敎
第一五五號·三聚淨戒
第一五六號·三因과三果
第一五七號·地獄
第一五八號·餓鬼道
第一五九號·畜生道
第一六〇號·阿修羅
第一六一號·人道
第一六二號·天道
第一六三號·聲聞
第一六四號·緣覺
第一六五號·菩薩
第一六六號·佛
第一六七號·布施
第一六八號·持戒
第一六九號·精進
第一七〇號·禪定
第一七一號·忍辱
第一七二號·智慧
第一七三號·方便
第一七四號·願
第一七五號·如來
第一七六號·惡人
第一七七號·阿含
第一七九號·阿字觀
第一八一號·阿字觀修行法
第一八二號·阿闍梨

學會日誌

本報에 비친 八年間

佛敎學會

▲佛敎大講演會‖四二九一年五月二十四日 市公館에서 二千餘청중이 雲集한 가운데 盛況。이날 演題및 演士는 다음과 같다。

黃義敦敎授『無恥의 生命觀을 實現하자』

朴春海敎授『人生과 佛敎』

金龍培敎授『佛敎哲學의 現代的 價値』

▲佛敎研究發表會‖四二九一年十二月七日 中講堂에서 開催、이날發表者와 題目은 다음과 같다。

金知見(佛三)『佛誕起源問題』

金光榮(佛四)『花郞道研究』

▲佛誕記念 佛敎講演會‖四二九二年五月十四日 市公館에서 救世誕生을 記念하여 열린 同講演會는 수많은 市民、學生이 참석한 가운데 朴春海敎授와 金基錫敎授、吳宗植敎授等이 二時間에 걸쳐 講演。

▲哲學會、佛敎學會 共同主催 佛敎學術研究發表會‖四二九二年十一月二十一日 三十一講義室에서 碩士學位修了者 四名의 發表가 있었다。發表者및 發表題目은 다음과 같다。

徐경洙「原始儒敎思想을 中心하여」

林相殷「李이의 性理學研究」

申宇撤「實用主義의 一考察」

朴性培「우파니샷드에 있어서의 凡我一如思想」

哲學會

▲學術강연회‖四二八九年十一月二十七日下午二時 강당에서。「歐美哲學의動向」이란 演題로 朴鍾鴻先生이 강연。

▲學術강연회‖四二九〇年六月二十二日 上午十一時 金俊섭博士를 모시고「現代科學哲學의 動向」이란 題目으로 강연회。

▲吳敎授강연회‖四二九三年六月二十九日 三十三강의실에서 吳宗植敎授를 모시고「西歐人이 본 四·一九學生義擧의 意義」라는 題目으로 강연회를 開催。

國文學會

▲第一回 學術講演會‖四二八八年六月七日 十一講堂에서。演題및 演士는「現代文學의 方向」으로 金東里先生이 擔當。

▲第二回 學術講演會‖四二八八年十一月一日 本校第九講義室에서 開催。演題ㅣ「國文學上에 나타난 自然의 樣相」演士ㅣ趙潤濟先生

▲第十七回 巡廻發表會‖四二八九年七月四日 서울文理大강당에서 發表者및 發表題目은 鄭輝萬氏의「國語文法의 敎育 當面問題」

▲第五回 東大詩朗讀會‖四二八九年十一月二十四日 市內 카토릭文化館에서 下午六時부터 開催 東國詩集第五輯 出版記念會도 兼한 이날 朗讀會는 七百餘聽衆이 雲集 贊助詩와 在學生詩等 二十餘篇이 發表됨。

▲東國詩會‖第六回 東國詩會가 四二九〇年十月二十四日 德成女大 강당에서 開催、東國詩集第六輯 出版記念을 兼한 同東國詩會는 二十餘篇의 先輩、在學生作品이 發表되어 盛況。

▲第一回 文學의밤‖四二九一年十二月九日 本校中講堂에서 八百餘 文學同好人들이 모인가운데 二時間餘에 걸쳐 同門 在學生 作品 二十餘篇이 發表。

▲第二回 文學의 밤‖四二九二年六月十三日 中講堂에서 盛況裡開幕。特히 第三部「詩를 爲한 舞踊」이 異彩로웠으며 여러 同門들의 講演은 한층 同모임을 빛나게 했음。

▲第三回 文學의 밤‖四二九二年十一月十四日 中講堂에서 二千餘 文學同好人이 모인가운데 開幕。李仁凡 바레단의 特別出演도 있었다。

▲新入生 歡迎白日場‖四二九三年五月二十六日 新入生과 在學生이 모인가운데 學行 朴기선君의「五月의 義血」이 壯元。

▲第四回「學의 밤」‖四二九三年六月四日 中講堂에서 數千文學同好人이 모인 가운데 순국학생위령의 詩作品等 二十餘篇의 同門、在學生作品과「詩를 爲한 舞踊」도 있었다。

▲第五回 文學의 밤‖四二九三年十一月二十七日 中講堂에서 開催되었다。함박눈이 내린 이날 文學의 밤에는 千餘文學同好人이 雲集하여 盛況을 이루었는데 第一部는 在學生、二部는 同門 三部는 詩를 爲한 舞踊으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第六回 文學의 밤‖四二九四年 六月十日 國文東壇의 二十代들이 意慾的인 新作을 發表한 文學의 밤이 開催되었다。三千文學同好人들이 雲集한 이날 밤에는 三十餘篇의 同門、在學生들의 作品이 發表되었음。

▲第七回 文學의 밤‖四二九四年十一月三十日 下午六時부터 中講堂에서 二千餘 同好人들이 모인 가운데 盛況을 이루었는데 이날 特히 戲曲立體朗讀은 異彩로웠다。三十餘篇의 同門、在學生作品이 發表되어 東國文壇의 傳統을 빛냈다。

英文學會

▲第一回 研究發表會‖四二八八年六月八日 本校一九講義室에서 具璋會君의「反照的語」란 論題로 發表。

▲第五回 學術發表會‖四二八九年六月二十二日 第七講義室에서。發表者및 發表題目은 다음과 같다。

李熹春(英三)「모음과 自由人」

▲第六回 學術研究發表會‖四二八九年十月二十八日 第七講義室에서。發表者및 題目은 金富榮(英三)君의「浪漫主義와 월리암·워즈워드」

▲文學講演會‖四二九〇年 十一月二十日 下午三時 第十六講義室에서。中央大學鄭寅燮敎授의「T·S·엘리올」에 關한 講演會가 있었다。

▲第一回「래틴·뮤직의 밤」‖四二九三年六月十一日 下午七時三〇分부터 中講堂에서 二千餘同好人이 雲集한가운데 講演및 詩作品朗讀도겸하여「라틴 뮤직의밤」을 盛況裡開催。

▲外人招請講演會‖四二九三年六月二十七日 七講義室에서 美大使館에 근무하시는 맥타가트英文學博士를모시고「英文學을 어떻게 배울것인가?」라는 題目으로講演。

▲各科對抗 雄辯大會‖四二九三年十月二十二日 中講堂에서 千餘관중이 雲集한가운데 學行되었는데 이날 團體賞에는 英文科 個人賞에는 一等에 최예근(法四) 二等에 이종익(英四) 三等에 김규만(英一)君等이 入賞되었다。

史學會

▲第十二回研究發表會‖四二八九年五月四日 第八講義室에서 盛況。發表者와 發表部門은 다음과 같다。

金昌洙(史四)「高麗時代의 民衆運動에 關하여」(國史部門)

沈永敦(史四)「歷史의 現代性에 關한 推論」(史學理論部門)

▲古蹟踏查‖四二九〇年六月二十日부터 二十一日까지 京畿道 安城 七長寺一帶를 踏查、많은 資料를 수집。

▲第十五回 史學研究發表會‖四二九〇年十一月十四日 十二講義室에서。이날 發表者및 發表題目은 다음과같다。

盧翰敬(史三)「羅代婚姻考」

조好吉(史四)「露西亞에 있어서의 農奴制度의 成立」

趙昌銀(史三)「十字軍戰爭發生의 動機에 關한 再考」

▲第二回 史學大會‖四二九一年五月三十日午前十時부터 二十講義室에서。

▲定例 史學發表會‖四二九一年十一月十八日 十四講義室에서。演士와 演題는 다음과같다。

安啓賢「高麗中期의 對中關係」

曺好吉「共同體의 諸形態」

金昌洙「麗初의 東女眞問題」

李東雨「綜劃運動에 對하여」

安貞模「루터主義의 北漸」

▲遺蹟寫眞、拓本展示會‖四二九三年六月二十日부터 來賓休憩室에서 六日間 遺蹟寫眞및 拓本展示會를 開催하여 盛況을 견웅。

▲古蹟踏查‖四二九四年九月二十九日부터 十月四日까지 慶北一帶의 古蹟을 踏查。

政治學會

▲第二回 政治講演會‖檀紀四二八八年十二月五日 市內市公館에서開催。演士및演題는다음과같다。

金錫吉先生「國際政勢와 韓國의 位置」

黃聖秀先生「美國政黨政治의 現實」

朱耀翰先生의「自由主義의 位置」

尹致暎先生「外交政策이 빚어낸 몇사람의 外交批判」

▲政治講演會‖檀紀四二八九年六月二十八日 第一講堂에서 演士및演題는 다음과같다。

金永善先生「韓國經濟政策의 回顧와展望」

曺在千先生「憲政八年間의 總決算」

▲佛誕記念 雄辯大會‖檀紀四二九一年五月二十六日 第一講堂에서 千餘청중이 모인 가운데 開催。이날 總長賞엔 李東益(經一)君「오늘에 努力하여야만」 副總長賞엔 李良雨(法二)「나하나만이」 學長賞 金大中(政四)「來日의 設計」

▲第三回 校內雄辯大會‖檀紀四二九一年十一月十日 第一講義室에서 千餘聽衆이 모인가운데 三時間餘에 걸쳐 進行된 同雄辯大會 一等賞엔 朴熙富(法二)君이「왜 못사나」란 題目으로 획득하였다。入賞者와 雄辯題目은 다음과같다。

一等ㅣ朴熙富(法二)「왜 못사나」

二等ㅣ김정조(經一)「젊은이의 삶」

三等ㅣ李淳權(政一)「나는 脫營兵士다」

▲第一回 全國男女高校對抗雄辯大會‖檀紀四二九二年五月三十日、三十一日兩日間에 걸쳐 中講堂에서 開催。佛誕記念行事의 하나인 同雄辯大會는 道義心 앙양을 目的으로 한 이자리에서는 團體賞에 大京商高 個人賞에는 梨花女高 金貞淑孃이 獲得하였다。

▲서울刑務所 見學‖檀紀四二九三年五月十八日 本學會會員 百餘名이。

▲第二回 全國男女高校雄辯大會‖檀紀四二九三年六月十一、十二兩日間에 걸쳐 中講堂에서 開催된 雄辯大會에서는 城東工高 유호웅君이 個人賞、團體賞에 大京商高가 획득。

▲第五回 模擬國會‖檀紀四二九三年十月十五日 中講堂에서 惠東民國國會로 稱한 模擬國會가 開催되었다。議題는 警察中立法案이었으며 總長賞에 김문환君、副總長賞에 이용우君等 十五名이 入賞。

▲第二十五回 議長賞 雄辯大會‖檀紀四二九四年四月二十二日 中講堂에서 開催。

▲第一回 南北統一 雄辯大會‖四·一九 一週年을 맞이하여 民族의 革命精神을 揚揚한 南北統一方案摸索等 入賞者와 雄辯題目은 다음과 같다。

特賞ㅣ高順福(政三)「統一彈」

一等ㅣ金來文(政一)「잠」

二等ㅣ趙在浩(佛一)「錄」

三等ㅣ金東源(政三)「國産煙草의 呼訴」

▲第三回 全國高校對抗 雄辯大會‖檀紀四二九四年十一月十九日 中講堂에서 四千餘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四十三名의 雄辯士가 革命精神과 國民道義앙양을 내걸고 學行。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團體賞 一位 漢城女高

個人賞 一位 한정웅(서울 맹아학교)

〈四面에 繼續〉

大學新聞의存在樣式과論說

朴　東　雲

論說

韓國의 各大學新聞은 編輯者들의 眞摯한 努力과 學園P·R面의 격지않은 成果에도 不拘하고 아직껏 現段階에서는 大部分의 境遇에 「기다리게 하고 읽게하는 新聞」으로는 되지 못하고있다。그淵由는 勿論 「캠퍼스」紙로서 갖게되는 「아카데미ㅋ」한 性格과 發行의 時間的 間隔이 주刊또는 半주刊이라는데 따르는 不可避한 制約의 所致라고 說明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編輯上의 「매너리즘」과 讀者層의 消極性도 看過될수 없는 一局面이라고 생각된다。一般商業紙와는 또달라서 말하자면 大學社會以上의 「우리 新聞」인 그 新聞을 잘만들기 爲한 建議와 協助는 在學生·同門·敎職員들의 共同責任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到大體이나라 讀者들은 오랜 歷史的 因襲의 탓인지 背後批評에 比하면 積極的反響이 매우 적다。그러니 編輯者의 千遍一律式인 紙面製作과 「아이디어」의 貧困、乃至는 요새말로 「安逸·無事主義」도 決코 偶然한 일은 아닐는지 모른다。

그리한 過去의 惰性을 제우치고 大學新聞이 名實그대로 大學의 눈과 귀(報道)이며 知性이고 代辯者(論說)이기도한 本來의 機能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쉬운것이 編輯當局과 學生間의 呼吸一致라고 생각되는데、그것은 于先 大學新聞의 綜合性에 對한 認識을 前提로 하여야 할것이다。周知하는바와같이 外國에서는 한때 學生新聞과 學校新聞을 區別하는 傾向이 盛行되고 있었다。學校新聞(Bulletin Board Paper)이란 學校當局의 公示訓示爲主의 新聞이고 學生新聞(Journal of Opinion)이란 學生自體에 依한 報道批判을 爲主로 하는 新聞이라는 것이었는데 最近에는 民主學園의 正常的인 新聞發行形態는 그 어느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를테면 敎學一體의 綜合性을 띠어야 한다고 指向되는데 大學新聞의 存在樣式이 또한 그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總長이 發行人으로 되고 敎授가 主幹으로 또는 學長이 編輯局長을 擔當하며 斯界專門家와 同時에 多數同門이 各單科大學마다 登場하는 「學生記者制度」가 導入되는것은 組織機構面에서 綜合性을 말해주는 것이고、報道面에서는 學校當局의 公示와 學生들의 多彩로운 「캠퍼스」活動의 諸般行事와 同門消息·社會消息이 다 같이 反映되고 研究發表와 寄稿와 創作等도 敎授들의 勞作과 學生들의 外部人士 特別寄稿와 더불어 같이 揭載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두가지 問題가 파上을 느끼게된다。하나는 紙面配當의 定型性과 平均主義인데 이것은 비록 敎學間、單位間의 紐帶設定에는 寄與할수 있겠으나 同時에 어느편에게도 滿足을 줄수없는 陳腐·單調한 局限感을 免치못하게 한다는 點이다。또하나는 大學新聞의 嚮導的機能을 擔當하는 論說이 學園與論을 集中化하고 指向性있게 顯在化하는 面에서 低調를 免치못하고 있으며、代辯보다도 說敎를、親近感보다도 疏遠感을 느끼게 한다는 點이다。

그리고 前者로 말하면 編輯에서 多彩롭게 取材의 幅을 넓히도록 留意하면서 從前의 取材범위외에 學生들의 無關心할수없는 ①他校動向 ②卒業後의 進出分野 ③最近時事問題의 趣移에 對한 洞察性있는 解說 ④外部寄稿의 引入 ⑤農村啓蒙、鄕土開拓等의 現地報道 ⑥學生相談等에 努力한다면 事態가 크게 改善되리라 믿으며、또 주刊인 까닭에 「새것」의 報道에 뒤늦게된다고 해도 그대신 「印象깊은것」을 追求할수 있으며 아울러 記事의 正確性·綜合性을 保障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다만 後者의 論說로 말하면 編輯局의 努力限界를 벗어난 느낌이 當然視된다。一般新聞에서 社說이 「컬럼」과 時事漫畫까지를 包含하여야하는데、特히 社說은 時事問題에 對한 新聞社의 意見을 正式으로 表現하는 同時에 國民與論形成에 미치는 公共的機能으로 보아 社의 良識과 權威의 試金石으로 看做된다。勿論 그러한 경우에 事情은 大學新聞도 大體로 그러나 大學의 責任的地位에 있는 大學總長과 敎授들이 社說에 對하여 重要한 關心을 갖게되는바는 無理가 아니다。對內的으로 學生 學校方針의 闡明、敎導의 指標로 되는 同時에 對外的으로는 大學의 見解와 權威를 代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大學新聞의 論說은 意見集中過程이 散漫하고 執筆者인 敎授가 專擔 或은 輪番으로 될때 大學의 責任者가 校閱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자칫하면 儀禮的立場이나 「無事主義」에 흐르기 쉽다。그 結果는 「읽지않는 社說」·「權威없는 社說」·「呼應없는 社說」의 産生을 보게될 憂慮도 없지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一般新聞의 經驗을 念頭에 두면서 各大學新聞의 論說의 質과 比重을 높이는 몇가지 着想을 提言하고자 한다。

①與論形成過程의 正常化。이것은 問題의 捕捉과 깊이있고 넓이있는 討議및 意見의 集中的歸納을 保障하기爲해서이다。具體的으로 大學新聞의 幹部會議가 論說委員會를 兼하는 性格을 띄게하되 그 會議에는 學校行政責任者·編輯局의 重要 「스태프」·學生代表와 더불어 有給論說委員인 敎授들이 參席하여야 할 것이다。

②問題取扱의 범위를 學內에만 局限시키지말고 學生들의 커다란 關心對象으로 되어있는 同時에 大學과 無關하지않은 以上 學園外의 時事에도 反映시켜야 할것이다。問題回避는 讀者들의 印象을 呼應을 받을수 없는 것이다。[illegible] 他大學의 自誇自大의 學生運動의 妄에 [illegible] 善에 흐르는 忌彈없는 公正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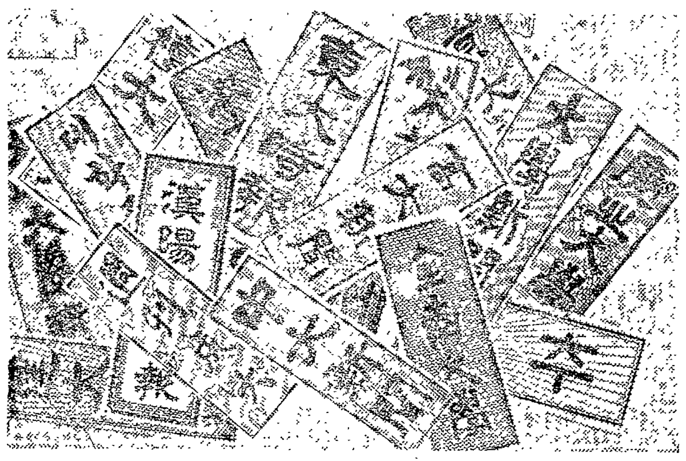
③批判의 學新聞이 學生들의 研究活動과 社會의 實踐的인 研究所等의 發表를 [illegible] 營生活等의 支援、姉妹結緣運動의 擴充等으로 [illegible] 「未知數의 來日」을 [illegible]

(法政大講師·韓國日報論說委員)

代辯보다 說敎性띠어 低調不免
公正하고 기탄없는 批判切實
機動力倍加로 週刊特性살리도록

岐路에선韓國大學新聞

◇…韓國　大學新聞의生態는어떤것일까？……………………………◇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틈바구니에서　大學新聞은　어떤　表…◇
◇…情을짓고　있어야하며　어떻게　新聞으로서의　구실을해야　할것…◇
◇…인가？　大學新聞이　韓國에서　發行되기신작한지　十年이　가깝…◇
◇…지만　참으로大學新聞에對해선　曰可曰否　말이많았고 ＜御用紙＞…◇
◇…라는　혹평도　받아왔다。日刊新聞關係者는　어떻게　보고있는가…◇
◇…여기　이분들의　親切한　視點을紹介한다。…………【編輯者】……◇



大學新聞編輯은學生中心으로

崔　致　根

編輯

K兄!

이 무더위에 東大時報 二〇〇號를 내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제게 맡겨주신 「大學新聞의 生態」란 論題는 猥濫된 負擔인것 같습니다。大學新聞을 제대로 읽지 않고 生態云云한다는 것은 너무나 大膽한 冒險인 것입니다。

그러나 大學新聞이 一般社會 日刊新聞의 縮小版이라고 볼때 日刊紙의 한編輯者로서 同門의 한사람으로서 「大學新聞의 編輯方向」에 대해 「希望」程度의 意見을 몇개 들어 볼까합니다。

×　×　×

첫째 『學生의 代辯紙』여야 하겠읍니다。

端的으로 말해 日刊紙가 그날 그날 일어나는 國內外의 重要 『뉴스』를 報道하는데 迅速·正確·公平을 『모토』로 한 『國民의 代辯者』인 言論機關이듯、學校新聞은 學生들의 民主的인 自治에 의해 運營되고 編輯되는 學園內全體의 報道機關이며 與論機關이라 하겠읍니다。大學新聞은 學園關係의 行事·事件및 周知事項을 널리·빨리·똑똑히 報道함은 더말할나위 없거니와 學生全體의 意思와 主張을 堂堂히 開陳하고 與論化하여 참다운 『學生의 代辯紙』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大學新聞은 어디까지나 「學生中心으로」 編輯되어야할 것입니다。

學生들의 論文、創作、手記、提言、批評등을 많이 收錄하여 서로 批判하고 討論하며 友愛心과 研究熱을 더욱더 涵養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합니다。國民의 「알權利」에서 비롯하듯이 學園新聞 역시、學生들의 「앎」에의 「눈」을 새삼 일깨워 주는 勉學의 促進劑가 되는 契機를 마련하여 커다란 成果를 거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都下 各大學新聞들을 훑어 볼때 마치 敎授들의 論文發表紙같은 印象을 받습니다。講義時間에 들을 수 있는 分野의 것일진대 굳이 半面이나 一個面까지 차지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敎授論文은 한 號에 權威있는 것으로 하나程度 鄭重히 싣고、그 대신 學生作品을 더 取扱했으면 좋겠읍니다。좀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作品이라도 回를 거듭하며 批評해 나아가면 차차 훌륭해 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取材面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記事는 知性의 殿堂에서 研鑽途上의 學生들이 쓰는 것인 만큼 높은 品格을 갖추기에 不斷히 努力해야 겠읍니다。

學園內 「뉴스」를 빠짐없이、正確히 取材하는 外에 學生과 連關되는 社會問題、時事問題도 많이 다루었으면 합니다。學窓을 通해 社會의 여러 斷面들을 解剖하고 展望해 보는 것은 머지않은 社會進出을 앞두고 民主的 生活土台를 닦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그리고 視野를 넓혀 文敎長官、總長 「인터뷰」같은 것을 試圖하여 커다란 呼吸속에 修練을 쌓는것도 決코 無意味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한편 지금 記事의 文體는 좀 딱딱한 것 같읍니다。우리나라 말을 醇化하고 다듬어 나아가는 過程을 考慮하여 되도록 漢文難句羅列調를 풀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新聞整理面에서 볼때 「시원한 紙面」을 만들어야합니다。「시원한 紙面」이라 보기좋고 읽기쉬운 印象的인 하나의 「美術的創作」을 이룹니다。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①記事의 選擇、配置 ②「컷」記事의 變型 ③寫眞의 選擇、配列 ④「컷」「빡스」의 美化 ⑤標題美등 諸要素의 調和로 이룩됩니다。

即 ①記事配置란 記事의 輕重을 옳게 判斷하고 大小로 나눠 立體的으로 돋뵈게 配置하되 큰 題目은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해야하며 ②「터포」을 劃一的으로 만들기 보다는 記事類에 따라 「컷」을 가로나 세로로 뜨고、題目을 가로나 세로로 붙이거나、가로나 세로의 「빡스」로 만들어 號마다 모양을 바꾸며 ③寫眞은 取材部에서 넘어오는것 中에서 좋은것을 골라 大小를 가려 製版시키고 되도록 紙面의 切半위의 位置에 左右中央으로 均衡이 잡히게 配列하며 ④「컷」나 「빡스」는 문의나 모양을 달리하여 한面에 한·두個는 꼭 넣으며 ⑤標題는 大體로 視覺에 「애필」해서 繪畫的效果를 내는 型態美·字句美와·聽覺에 呼訴해서 音樂的 價値를 보는 音律美를 잘 살려 淸新하고 輕快한 字句로 그記事의 特色을 가장 適切히 表現해야 합니다。

─『百行의 記事보다 一行의 標題』란 말까지 있기도 합니다。(글쓴분·同門·京鄕新聞社編輯部長)

百行의記事보다 一行의標題
‖敎授論文避하고 學生創作·批評等많이실도록‖
學生의意思·主張 堂堂히開陳하라

여기에　紹介하는　國際大學新聞憲章및　倫理綱領은　1960年8月「스위스」의　「크로스터스」에서　열린　第九次國際大學新聞會議에서　채택된　것이다。【編輯者註】

國際大學新聞憲章

自由스럽고　勇敢한　新聞이　民主社會의　基本要素이며　大學新聞은　이　역할을　맡을　義務와　權利가　있다。

그리고大學新聞은　모든　外部로부터의　영향과검열로부터의　獨立을　유지하지　않는限　그　目的을　이룰　수없음에　비추어　第九次　「國際大學新聞會議（ＩＳＰＣ）」는　下記事項이　自由로운　大學新聞의　基本條件임을宣言한다。

1．大學新聞은　國際聯合言論自由（基礎）會議의精神에　비추어　어떠한　政府機關이나　大學當局의　통제에서도　自由스러워야　한다。

2．大學新聞은　學生團體의機關紙일　때를　除外하고는其他　學生團體의　통제에서自由스러워야　한다　。

3．大學新聞은　財政및　其他의　모든外部　團體로부터의　압력에서　自由스러워야　한다。

4．大學新聞은　取材의　自由를　누리며　또한　다른　一般　新聞記者가　가진　權利및　特權을　가져야　한다。

第九次　國際大學新聞會議는　모든　大學新聞이　學生들의　意見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莫重한　責任을　지고있음을　認識하여　모든　大學新聞은　마땅히　그責任을　느끼며　모든　파벌에　超然토록　노력하며　또한　協助精神에맞추어　行動하도록　努力해야　할것을　宣言한다。

國際大學 新聞倫理綱領

「國際大學新聞會議」는　全世界의　모든　大學　出版物이　人間權利의　基本原理를　존경해야하며　優秀한　質과高邁한　品行을　유지해야　할것을　믿어　下記　倫理綱領을　모든學生言論人이　준수해줄것을권장한다。

1．學生言論人은　항상　편견이　없고　그의　報道에　있어　正確하도록　努力하며　活字化된　自己의　記事를　증빙할　수있는　事實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學生言論人은　記事를　위한　인터뷰를　하기　前에大學新聞의　代表者로서의　自己身分을　밝혀야만　한다。

3．編輯人은　學生의意見이　編輯方針과　反對된다는　單하나의　理由만으로는이를　無視할　수　없다。

4．編輯人은　모든　錯誤에　對하여　될　수　있는限　빠른　時日內에　紙上으로　사과해야　한다。

5．學生言論人은　뉴스와　事實의　正直한　수집및　發表를　通하며　또한　公正한　批評과　批判의　權利를　通하여　自由를　옹호하여야　한다。

6．學生言論人은　取材源과　個人文書에　關한　모든　秘密을　지켜줘야하며　또한　學生言論人은　文書를　변조하거나　事實을의하거나　그릇　表現해서는　안된다。

7．學生言論人은　自己나라의　명예훼손및　法的모독에관한　法律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國際著作權協定이　出版의　自由　또는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報道할　必要性을　저해하지　않는限　그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對外關係,검열,　여하한　外部團體（政治的,政府，宗敎및　大學當局）로부터의　압력이나　그릇된　영향으로부터　大學新聞의獨立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그러나學生會의　機關紙는　그會에　對하여　特別한　責任을　갖는다。

＜COSEC提供＞

당신은누구의편이오?

李　綱　鉉

取材

大學新聞을 펼쳐볼때 그題號를 確認하지않으면 一般新聞社의 新聞이 아닌가하는 錯覺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理由인즉 大學新聞에 印刷된 活字와 編輯「스타일」이 퍽그나 舊面이기 때문이다。日刊各新聞社에서 사용하고 있는 活字와 編輯에는 各社마다 제各其 特色이 있기때문에 新聞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勿論 各新聞紙面에 多年間 親交(?)가 있는 讀者들은 이두가지로 그新聞의 體臭를 느낄수있는것이 事實인것이다。

이말은 무슨말인고하니、첫째 大部分의 大學新聞이 日刊新聞社에서 印刷하고 있다는것을 說明하려는것이다。(東大時報社만은 自家印刷工場이 있지만) 勿論 우리나라의 現實로 보아 不可避한 일이겠지만 新聞이라면 各自의 印刷工場만은 가졌으면 하는 慾心에서 하는 말이다。둘째로는 一部를 除外하고는 一般新聞社에서의 「編輯스타일」과 별差異가 없는 傾向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것이다。

學生新聞이란 特色을 살리려면 旣成新聞의 編輯模방을 脫皮하고 獨自的인 製作機構를 가져야만 그體能이 健全하여질 것 같아서 大學新聞의 첫印象을 말하는것이다。

新聞이라는것을 讀者가 볼때는 대스럽지 않은것같고 그러기때문에 쉽사리 曰可曰否 是非도 하겠지만 그대수롭지않은 紙面이나마 讀者의 손에 가기까지는 製作者의 남모르는 勞苦가 얼마나 犧牲되어 있는가를 아는 筆者로서는 이글을 쓰지않겠다고 사양하려하였으나 編輯計劃上 不可避하다기에 그분들에게 本意아닌 作弊가 될까하여 即興的으로 몇마디 지꺼려보겠다。

學校機關紙性格脫皮時急
사소한 學生社會의 事件도 報道돼야한다
敎授論文偏重으로 어두운紙面

大學新聞은 特殊紙에 屬하는 機關紙일것만은 틀림없을게다。萬若 筆者와 意見을 달리하는분이라면 別問題로하고 機關紙라면 機關紙의 구실을 誠實明確히 하여야 할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다。機關紙로서의 性格即 社是를 實質的으로 表現되어야 할줄로 안다。學校當局의 機關紙가 되든지 學生의 機關紙가 되든지 말이다。筆者의 생각으로는 大學新聞은 學生의 機關紙일것을 믿는다。

그러나 全體大學新聞을 昭상히 들어보지 못하여 장담은 못하겠지만 一部新聞만을 살펴본바로는 그와는 反對로 學校當局의 機關紙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니 섭섭하다。이와같은 現狀을 모지게 評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御用紙」라고 부른다。名譽스럽지 못한 代名詞다。大學新聞이 그렇게 되지않으면 안될 事情이 있다면 그것은 그事情에 苦悶하는 新聞製作當事者가 打開하여야할 問題일것이지 그事情때문에 新聞의 表情이 不透明하여서는 안될것으로 안다。校內에서의 活動이 外部에서는 모를 妙한 制約이 있음은 짐작도 가나 그렇다고 大義名分을 讓步하여서는 안될게 아닌가。學生의 氣槪가 모든 面에서 囑望될진데 特히 稱號가 新聞이라는 데서 더욱 아쉽게 여겨진다。

某大學新聞에서 본일이다。날짜는 記憶나지 않지만…그學校의 幹部記事에 「××께서는」이란 句節을 보았다。이 「께서는」이 當當히 印刷가 되어서 나온것인데 어떻게 되어 구역질나는 表現이었다。그런 誤解일른지 모르지만 表現까지 自然스럽게 나오게 되는데는 必是 新聞製作上의 重大한 缺陷이 있다고 볼수밖에 없으니 大學新聞에 從事하는 분들의 一層의 努力을 부탁하고 싶다。

校門을 나온지가 오래인지라 지금의 學生들과는 距離가 먼지 모르지만 大體로 일은 紙面이 딱딱하고 감각이 어둡게 보인다。그原因은 많이 엿보니 學術論文이 紙面을 占領하고 있음을 알았다。學生新聞의 사명이 論文種類를 過剩生産하여야 하는가 보다고 速斷하였지만 그러나 文等이 新聞領土를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尊重하여야 하는것과 같이 理解가 잘 안가는 點이다。新聞이 아니라는 「아카데미」한 座帝이 있지 않을까。勿論 新聞이 論文發表를 忌避하여야 한다는 理由는 없지만 新聞論文은 「뉴스」性을 가진것이어야 하고 新聞의 食性에 맞을것으로 이왕에한다。이니 더 具體的으로 계속 하기 시작한 말하겠다。大學新聞은 社會面的 報道에 渴症을 느낀다。學生社會에서 發生한 世情雜事말이다。사소한 學生들의 움직임이나 조그마한 事件이 바로 그世代의 學生社會를 [illegible]

[illegible]

(글쓴분·國文科同門·東亞日報地方部次長)

日本의大學新聞

日本의 大學新聞가운데도 아직 日刊紙는 없다。東京과 京都등 大都市에 있는 有數의 大學에서만 주刊과 旬刊新聞이 發刊되고 있을 뿐、그외는 大部分이 月刊或은 半月刊으로 나올뿐이다。주刊紙에는 早稻田、東京、明治、京都의 各大學新聞과 三田新聞이 있고、慶應義塾、法政、一橋、中央、立命館大學에선 旬刊이 發刊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經營方法도 韓國처럼 全體學生으로부터 登錄時에 義務的으로 購讀料를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東京敎育、神戶、東京大學등은 自由裁量에 依한 購讀料와 廣告收入으로 獨立採算을 指向하고 있다。

그외 立命館、東北大學新聞등은 學友會(同窓會)、自治會豫算에서 充當하며、明治大學처럼 學校當局의 補助로 運營하는 경우도 있다。購讀범위도 大學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기껏해야 우리나라처럼 關係敎育機關이나 先輩에게 郵送하는 程度이다。그러나 東京大學新聞은 鐵道弘濟會(우리나라의 康生會)나 書店을 通하여 數千部가 一般에게 販賣되며 大學外의 豫約購讀者도 많다。

內容面에 있어 ＜大學의 御用新聞이 아니다＞는 스로강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大學關係의 記事와 宣傳的인 媒介體役을 脫皮치 못하고 있는 實情은 우리와 別다름이 없다。이러한 點은 二·三月 入試시즌과 봄·가을의 大學祭를 前後하게 露骨的으로 나타난다。

學生新聞의 組織機構로는 全日本學生新聞聯盟(全學新)이 있다。여기엔 一三二個 新聞이 加盟하고 있는데、이들 加盟紙들은 政治意識이 두드러진 것이 特色이다。그러나 東京、慶應、三田新聞들은 政治問題나 學生運動에 對해서도 지극히 客觀的 態度를 견지하고 있다。그래서 아카데미ㅋ한 新聞이라고 「全學新」側에선 이들을 ＜書評紙＞＜御用紙＞라고 批判한다。

판소리文學의特性

(下)　金　起　東

事件의 諸諧性은 「春香傳」에서 보다도 「興夫傳」이나 「雍固執傳」 「裵裨將傳」 「卞강쇠傳」等은 事件 全篇이 一貫諸諧的인 事件으로 끊임없는 웃음을 挑發시켜 주고 있다。興夫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興夫內外 보고 있는 場面이라든가、興夫가 兄의 집에 가서 매맞고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든가、興夫가 金富者代身에 매맞으러 갔다 돌아오는 場面이라든가、虛行하고 돌아오는 場面이라든가、박타는 場面같은 것은 諸諧的인 表現을 잘해 놓았다。그리고 「裵裨將傳」은 序頭부터 結尾까지가 豊富한 諸諧로 表現되어 있으나、特히 後半에 濟州名妓 愛娘의 奸計에 빠져 白晝에 裸體를 露出시키므로서 餘地없는 妄身을 하는 場面같은 것은 웃음이 배꼽이 떨어질 程度의 諸諧의 極致를 이루어 놓은 作品이라 하겠다。이러한 諸諧性은 판소리의 聽衆에게 끊임없는 웃음을 주면서도、語塞한 웃음이 없이 조금도 아주 自然스럽게 表現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主題의 諷刺性

다음 판소리의 內容이 諸諧性을 띠고 있다는 것은、판소리가 諷刺性格을 가지고 있는 文學이기 때문이다。于先 「春香傳」을 보더라도 그 主題가 社會的 階級意識을 超越한 男女間의 愛情問題를 다루어 보았다。한편으로는 支配階級에 對한 諷刺를 試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llegible] 卞使道의 暴虐과 腐敗性을 諷刺하였다는 데는 누구든지 首肯할것이다。「興夫傳」은 表現하였고、兄弟間의 友愛를 諷刺로 固執하고、不孝하고 一生守錢奴를 諷刺하였다。그리고 「裵裨將傳」은 沒人情한 吝嗇하고、不孝하고 「卞강쇠傳」이나 「梅花打令」 「武叔打令」 「紅陵」 等은 兩班의 好色的인 生活을 [illegible] 諷刺하였고、李朝時代의 一장한 習俗이었던 改嫁禁止法에 對한 女性들의 [illegible] 「沈淸傳」은 판소리가 諷刺를 主題로 하지 않은 作品이다。[illegible] 判官을 諷刺하였으며、人間性의 缺陷을 諷刺하였다。[illegible] 學은 英正時代의 主題性을 띠고 英正時代의 思想의 影響을 받아 形成되었기 때문에 문학은 詩歌나 小說에 判 소리가 諷刺主義的인 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illegible] 法以上으로는 그것이 文學의 立場에서 보았거니와 특히 판소리를 눈으로 보는 文學이라 하기보다는 귀로 들으는 文學이며、음을 흘려서 숨어는 文學이라 하겠다。그러한 性格을 띠고 特性이 있다。〈끝〉

國內大學新聞現況

우리나라에서 發刊되는 大學新聞은 주刊、旬刊、半月刊、月刊、季刊等을 통털어 昨年 五·一六 即前까지에는 六十四種으로 推算되고 있으나 現在의 正確한 數字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大學新聞의 現況도 外國大學新聞界에 比긴다면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大學新聞이 創刊된지 不過 八·九年 밖에 안되어 오늘날처럼 發展했다는 것은 그동안 大學新聞에 從事하고 있던 이들의 勞苦가 如實히 證明하고 남는 일이다。

순수한 學生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大學新聞으로 每주一回씩 發刊하고 있는 서울市內의 主要大學新聞은 高大新聞、中大新聞、연세춘추、주刊成大、大學주報、東大新聞、그리고 淑大新報와 梨大學報、建大新聞이 자못 活潑하게 初創期의 때를 벗기에 바쁘고 있다。그밖에 大學新聞으로 주刊紙가 금방금방된듯한 것으로는 漢陽大學校의 漢陽大學報、檀大新聞等이 活氣를 띄우고 있다。

國內에서 刊行되는 主要 大學新聞을 보면 ▲大學新聞 ▲高大新聞 ▲주刊成大 ▲淑大新報 ▲中大新聞 ▲연大춘추 ▲大學주報 ▲漢陽大學報 ▲外大學報 ▲槿大新聞 ▲建大新聞 ▲梨大新聞 ▲首都師大新聞 ▲師大學報 ▲부산대학보 ▲전남대학보 ▲大邱大學 ▲朝鮮大學報 ▲靑丘春秋 ▲忠南大學報 ▲水大學新聞 ▲慶北大學新聞 等等

學會日誌(其二)

〔法學會〕

▲第一回模擬裁判‖檀紀四二八七年十二月五日上午十時부터 慶雲洞 法政大學體育館에서 金中洙法政大學長等 多數의 來賓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룸。

▲第二回模擬裁判‖檀紀四二八八年十一月六日市內 文化館에서 開催。東國法院 第四號 法廷으로 불리워진 同裁判에서는 嬰兒遺棄事件을 實感있게 처리。

▲第五回模擬裁判‖檀紀四二九一年五月二十四日 市公館에서 東國法院 大法廷으로 開催。韓裁判長 李在淳

이날 特賞에는 (法四)

▲仁川刑務所見學‖檀紀四二九三年五月二十九日 新入生을 맞이하여 仁川刑務所 見學。

▲第八回 東國模擬裁判‖檀紀四二九四年十月八日 市內 市公館에서 三千방청객이 모인가운데 遵法精神昻揚을 目的으로 開催。東國法院은 의약품에 의한 살인事件을 취급하였는데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一等　檢察官　鄭振基(法四)
二等　被告人　金政子(法一)
三等　裁判長　鄭寅雄(法四)

▲學術講演會‖四二九〇年五月二十二日下午二時 八講義室에서 産銀總裁를 歷任한 林松本氏를 招聘하여 同講演會는 林松本氏가 「美國의 對韓態度」란 演題로 第一講堂에서 있었다。

〔經濟學會〕

▲國經濟政策을 力說하는 始作된 同演士로 모시고

▲特別講演會‖四二九〇年六月七日 對外援助에 關한 ▲復興部長官 宋仁相(當時)을 모시고 盛況。

▲學術講演會‖四二九〇年十一月二十八日 復興部長官을 招聘하여 「新年度 經濟援助 投資計劃」이란 演題로 學術講演會

▲第二回 經濟學討論大會‖四二九一年五月十三日 第十講義室에서 三百餘會員이 雲集한 가운데 盛況。

▲經濟學뉴ー스上映‖ 玉君(經四)이 이루었는데 이날 總長賞에는 張

▲第三回 經濟學術討論大會‖四二九三年六月二日下午一時부터 三講義室에서 「近代資本主義發展過程分析」이란 題目을 놓고 數百會員이 모인 가운데 討論。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經商學會主催 「經商學友의 밤」‖四二九三年六月二十九日 第一回 經商學友의 밤이 中講堂에서 開催되었다。音樂과 독창、노래자랑등 多彩로운 프로그램으로 관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넣어 盛況。

▲經濟學會、商學會、經營學會 共同主催 第一回 全國中高生 珠算大會‖四二九三年十一月八日 禪武部修鍊館에서 開催되었다。珠算技術의 熟達과 이에 對한 創意性과 判斷力을 양성을 目的으로 開催된 同 珠算大會에서의 入賞部分과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中等部 團體賞ー群山南中學校
◇學校對抗리레 一等ー裡里中學校
◇個人賞 一等ー김길남(群山南中)

▲第二回 經濟學術討論大會‖四二九四年五月一日 中講堂에서 國家富强의 터전이 되는 諸經濟問題를 討論할 目的으로 開催되었는데 이날 入賞者와 論題는 다음과 같다。

特賞　陳宗龜(經三)「弗貨價值變動과 美國經濟體制」

優秀賞　鄭亨鎭(經四)「달라危機는 解消될것인가」

▲第二回全國男女中高校珠算競技大會‖四二九四年九月二十六日 中講堂에서 開催되었다。文敎部、商工部、財務部및 市內 各銀行의 後援으로 열린 同 競技大會의 入賞校및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高等部　團體賞　一位　彼橋商高
　　　　個人得點　一位　박서원(彼橋商高)
　　　　綜合算　一位　박서원(彼橋商高)
中等部　團體賞　一位　서울文英女中
　　　　個人得點　一位　정인숙(서울文英女中)
　　　　綜合算　一位　김후수(群山南中)

〔經營學會〕

▲模擬株主總會‖四二九四年六月二十三日 中講堂에서 眞摯한 企業經營의 模索을 目的으로 開催되었다。假稱 「東國鑛業株式會社」로 株主 九七名에게 배분구성한 이날의 株主總會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特賞　金영종(經四)
優秀賞　姜金聲(商三)

〔農學會〕

▲農村實態調査‖四二九〇年七月二十五日부터 夏期放學을 利用하여 一個月間 全國에 걸쳐 實施되었는데 同實態調査에서는 農村의 學問的 資料를 수집、農家마다 소작、자작、경작 면적등 多角度에 걸친 諸般實態를 調査。

▲第一回 農業問題 學術강연회‖四二九三年十一月十九日 中강당에서 開催된 同 강연회는 참상을 해부、발전의 길을 모색코자 朱碩均、朱世中氏等 네분을 招請했는데 演士및 演題는 다음과 같다。

朱碩均「四月革命과 農業政策의 方向」
朱世中「韓國의 農村實情과 學徒의 使命」
容奭「現下 韓國農業의 위치」
李振默「農業과 四H運動」

〔奬學生會〕

▲全國男女高校對抗學術競進大會‖四二九三年十一月二十五日 中강당에서 開催 全國高校學生들의 實力向上을 目的으로 열린 大會의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團體賞特等　釜山高校
〃　一學　城東高校
個人賞　一等　朴勇(釜山高)

財團法人
東國學院

國有林野貸付에 樂觀
學生들의 自重要望
鄭總長 李理事長 11日, 學生들에게 發表

◇…11日 財團法人 東國學院에서는 東國大學校의 大運動場 設置를 위…◇ …하여 萬餘坪에 達하는 學校隣接 國有林野貸付를 關係當局에 申請하는…◇ …한편 그地帶에 隣接해있는 個人所有地도 買入키로 決定하고 學校當局…◇ …者및 同窓會代表와함께 關係當局을 訪問하여 建議하는等 이를 積極推進…◇ …하고있어 그간 全體學生이 熱望하던 運動場問題에는 圓滿한 曙光이…◇ …비치고있다.◇

曙光비처온 東大運動場

鄭 總 長

李 理 事 長

同窓會서도 積極推進

鄭斗石總長과 李熙昇 財團理事長및 洪淳池 同窓會 理事는 이날 下午一時頃 30餘 學生代表들에게 前記와 같은 事實을 發表하고 學生들이 自重하여 學業에 全力하는것만이 運動場設置의 가장빠른 길이라고 強調하였는데 學生들은 이러한 發表에 滿足한 表情을 짓고있다.

한편 이날 消息通은 運動場垈地로 關係當局에 申請한 石造舘左側 國有林野의 貸付는 樂觀的이라고 밝혔다.

學生들 連坐呼訴
五日, 大運動場問題로

그런데 本校運動場豫定地(國有地)였던 圖書舘및 大學院 東便垈地에 政府施策으로 中央公務員敎育院新築이 着工됨으로써 運動場設置의 希望이 거의없어지자 지난 五日 本校 全體學生들은 關係當局에 對하여 公務員敎育院은 이곳이 아닌 다른곳에도 얼마든지 建立할수있을 것이니 이垈地는 私學의 올바른 育成과 國民體位向上을 위한 體育敎育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本校 運動場으로 사용케 해달라고 陳情하는 同時, 이를 連坐呼訴 하였다。

本校生 들은 이날 政府施策에 呼應하라는 學校當局의 强力한 만류에도 不拘하고 ①國民體位向上을 위한 ②體育敎育의 重要性과 本校 同垈地가 아니면 運動場을 設置할 場所가 거의없다는 點 ③同敎育院 建立으로 말미암아 圖書舘 築台가 헐리는等 巨大한 圖書舘建物의 安全에 危險이 있다는것等을 指摘하여 當局에 이를 運動場으로 사용케 해줄것을 陳情하고 連坐하여 呼訴했다。

이날 連坐呼訴는 鄭總長과 同窓會側에서 運動場問題解決을 적극 서둘러 11日까지 希望的인 對策을 강구、학생들에게 發表할 것을 約束한뒤 해산하였던것이다。

時間數늘여 50分講義
主任敎授會議서 學生指導策도 決定

四個單科大學、二十一개학과 주임교수회의가 지난 10日오후 三時本舘會議室에서 總長과 各學・處長이 參席한가운데 열렸다。各科主任敎授가 참석한 이회의에서는 학생들의 質을 좀더 向上시키고자 논議를 거듭하던끝에 우선 授業에있어서 보다능율을 올리기爲하여 從前에 行하던 一〇〇分강의를 五十分으로 短縮하고、時間數를 늘이는한편 休息時間을 두는等 學生指導에 積極策을 樹立하였다。이날 會議에서 決議된 事項을보면 다음과같다。

▲時間配定에 있어서 學業能率을 올리기爲하여 現一〇〇分授業을 五十分으로하고 時間配定數를 늘이며 休息時間을둔다。

▲導任講師以上은 一주에 四日以上 學校에 出勤하여 學生들의 學業指導에 專力한다。

▲實力向上을 爲하여 高級學年에겐 隨時로 實力考査를 行한다。

▲어떤종류의 試驗이라도 試驗監督과 採點을 嚴格히한다。

포드會、研究發表
21日 李・任兩君

經濟科 學生들로 構成된 「포ー드」會에서는 지난 6月29日 오후I時 大學院 研究室에서 法政大 孫興周副敎授를 모시고 第四回 研究發表會를 가졌다。

이날 研究發表者는 李正吉(經三)君의 「中小企業과 生産向上에 對하여」와 任香根(經濟科二)君의 「貨幣量說과 適定統貨量」이었다。

三・一奬學金 드디어 支給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 三・一奬學會에서는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同奬學金을 지난二日、드디어 支給하였다。이에 따라 本校에는 金周環(佛四)君이 支給받았는데 今般 支給額은 三・四・五・六月分 一三、〇〇〇원이다

國文學論文集 第三輯을 發刊

文理大國語國文學會論文集 第三輯이 發刊되었다。이 논문集은 國文學科 敎授들및 大學院生 數名의 國文學에 關한 논문이 실려 있다。한편 同會에서는 논문集發刊 自祝會를 十三日에갖는다。

海外留學考試 八月九日實施

文敎部에서는 오는八월九・十兩日間에 걸쳐 海外留學資格考試를 實施한다고 한다。資格과 提出書類는 종전과 같으며 원서는 七月三十一日까지 문교부에제출하여야 하는데 시험장소는 추후 發表할것이라고한다。

梁大學院長 就任承認
六日字、文敎部서

지난 四月九日字로 本校 大學院長에 就任하여 視務中인 梁柱東博士(59歲)는 六日 文敎部로 부터 정식 就任承認을 받았다。

一九四六年以來 十餘年間 本校 敎授와 大學院長을 在職하면서 大學發展과 後進育成에 不朽의 功獻을 남긴 梁博士는 昨年末까지 延世大敎授를 歷任한바 있다

설악山을 등반
放學中山岳班員들

本校 산악반에서는 여름방학동안 雪岳山 登攀을 强行한다。十五名으로 構成된 山岳班員들은 다른 山岳班들이 아직 정복치 못한 지점의 정복을 위하여 등반한 것이라는데 의기가충만하다。朴炳一(法四)班長인 솔하에 七月二十五日 떠나는 同班은 약 十五日間의 登攀을마치고 八月九日頃 돌아올것이다。

″農漁村의 貧困은 再建의 敵″
農漁村勤勞團 强化
七個班編成코 準備萬全

본교생들은 올 여름방학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농어촌으로 돌아가 농어민들과 함께 흙을파며 문맹퇴치를 위한 계몽을 전개한다。농어촌 건설의 의욕에벅찬 이들 젊은 旗手들은 『農漁村勤勞團』이란 이름으로 지금 현지로 떠날 온갖 준비에 분망하고있다。

奉仕와 啓蒙으로 農漁村의 振興을 爲하여 旗를 높이들고 心身을 바쳐온 本校 二百餘學生으로 구성된 農漁村研究部에서는 이번 시 夏季放學을 맞아 보다 많은 成果를 거우기 爲하여 農漁村啓蒙隊를 「農漁村勤勞團」이라 改稱하는 한편 機構를强化하고 오는 25일 定期啓蒙地인 京畿道楊州와 廣州를 爲始하여 昨年에 姉妹結緣한 全國 十二個 姉妹部落으로 떠난다。

「農漁村의 貧困은 再建의 敵、피와 뼈를 갈아 祖國땅 開拓하자」라는 못토아래 뭉쳐진 男女 四十餘名의 勤勞團員은 七個班으로 編成하여 7月25日부터 8月5日까지 十日間 奉仕한다。

定着및 巡廻하면서 啓蒙과 勤勞奉仕를 할 이 勤勞團의 活動을 보면 生活面으로써 住宅問題、衣服改善、衛生指導、迷信打破、禮儀制度의 改革、文盲退治、協同精神昻揚、家族計劃 등의 啓蒙과 技術面으로써 農業의 多角化、土地改良事業、農藥施肥의 合理的인 撒布와 協同組合、農事改良部를 비롯한 四H俱樂部 生活改善部、再建青年會와 婦女部等 各團體의 運營및 技術指導와 其外에 勞力奉仕하게된다。아침 五時에 起床하여 體操普及및 再建 美化作業과 醫療奉仕와 勞動奉仕를 하며 아울러 實態調査도 하리라 한다。

同勤勞團에서는 이에 앞서 一주일간 奉仕를 爲한 강연회도 개최 하는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農漁村勤勞團班別名單

▲京畿道楊州郡瓦阜面鎭中里=高光允(농一) 崔基助(농一) 林昌萬(국三) 孫淑子(생二) 崔榮淑(생二)

▲京畿道廣州郡五浦面文衡里=金用鉉(농三) 梁哲雄(농二) 盧東圭(농二) 金石洙(농一) 朱淑子(생二) 閔庚子(상一)

▲忠北報恩郡外俗里面下開里=劉鍾熙(농경二) 金相鍾(농경一) 吳隆徐明子(국三) 權順子(국三)

▲忠北報恩郡外俗里面荒谷里=權五鳳(농三) 李爽根(농二) 金英憲(同) 李光子(국二) 崔明子(국二)

▲忠北報恩郡外俗離面梧蒼里=姜信國(농二) 李潤基(농경二) 裵忠南 朴清子(농一) 安明子(국三)

▲慶北義城郡春山面金梧二洞=劉昇干(농二) 黃武勇(史二) 姜允子(英三) 李熙川 李勝子(농一)

▲全北南原郡寶節面書峙里=李柱七(농二) 景燮(농경二) 尹紗嬉(영三) 洪貞嬉(영三)

食品工學會서도

한편 食品工學會에서도 前記勤勞團과는 별도로 七月二十五日부터 八月五日까지 十日間 全北 錦山에서 食品改良을위한 全般에걸친 啓蒙을 實施하리라한다。食品工學會 啓蒙隊員의 名單은 다음과같다。

▲韓文子(二) ▲朴惠和(一) ▲魯泰成(一) ▲柳明燦(一) ▲任榮準(一) ▲金惠淑(二) ▲金美愛(二) ▲尹在聖(二) 盧完燮(二) 李根益(二) 蘇義正(二) 禹震和(二) 李載憲(二)

大學의 얼굴, 紙齡200
=「新聞의 使命」다시 다짐하며=

東國의 表情

○…屋上에서 들여다 보는 大學의 거울。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휘날리던 十年間의 내얼굴이 大學의 얼굴이 총총이 들여박힌 거울을 보면 나이는 二○○、지나온 발자욱은 보람차거라。

○…넘치는情熱로、솟음 치는 氣魄으로 우리들의값진 젊음을 점철한 東國의表情、「우리들의 新聞」엔살아 뛰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온다。

○…一九五二年 十一月 創刊한以來、「東國月報」、「東大新報」「東大時報」를거처이제 우리들의 얼굴、우리들의거울은「東大新聞」―。自由를爲하여、正義를 위하여 슬기롭게 싸웠던 자랑스런 어제처럼、新聞의 決意는 더욱 더 군어져라。

菩提樹
惡 友

佛敎에서는 正道가 아닌 行爲를 하는벗을 惡友라한다。여기서 正道라는것은 두말할것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서 實踐하고 드디어體證해서 부처님과같이 成佛하고 여러사람을濟度한다는것이다。그래서 佛敎에서는 善과 惡의 표준을正道에두는것이다。正道에 도움이 되는 行爲를 하는벗을 善友라하고 外面上으로 아무리좋은 行爲라도 正道를닦는데 妨害가되는 行爲를하는벗은 惡友라는 것이다。高麗末高僧牧牛子가지은 佛敎入門의指針인「初心文」이라는책의 첫머리에「夫初心之人은 須遠離惡友하고 親近賢善하라」하였다。佛門에 처음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惡한 벗을 멀리여히고 어질고 착한벗을 가까히 親하라는뜻이다。거이때를 같이한 野雲이라는분은 「自警文」에 惡友를 멀리하기를 원수집과 같이하며、착한벗을 섬기기를 父母같이하라하였다。이것은 모두 惡友가 正道를 妨害하는 까닭인것이다。

그래서 經典中에도 惡友를 警戒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長阿含部에 屬하는善生經에는 여섯가지 惡友를 들었다。

첫째、가지 가지의 詐欺를 꾀하는者

둘째、秘密진곳에서 陰謀꾸미기 좋아하는者、

셋째、다른 사람을 誘惑하기 좋아하는者

네째、남의 財物을 橫取하려는者、

다섯째、自己배부르기에만 일삼는者、

여섯째、남의 缺點캐내기 좋아하는 者等이 그것이며 또같은經에서는 惡友와 親하기쉬운 環境네가지를 들고있다。

하나는 飮酒할때、둘은 도박할때、셋은 淫行을할때、넷은 歌舞할때 等이다。

六方禮經에도 四惡友를 들고있으니

첫째、마음속으로妄想을 품고있으면서 겉으로 善知識인척하는 것。

둘째、사람들 앞에서는 좋은말로 꾸미고 背後에서는 惡說을하는것。

셋째、사람의 危急함을보고 눈앞에서는 근심하는척하면서 뒤로는 꼬수하다고 즐거워하는것。

네째、外보는 親分이 두터운척 하면서 속으로 怨心을 품고있는것 等이다。

古人들도 항상 惡友를 멀리할것을 타일러 「近墨者黑」이라 하였다。깜정물감에 가까히하면 쉽게 검게되며 붉은물감에 가까히하면 쉽게 붉게된다는 뜻이다。九孔炭工場 職工치고 검지않은사람 없으며 煙桶掃除하는사람치고 코ㅅ등이 말숙한사람 보지못함과 같다는것이다。

하로는 부처님께서 阿難陀弟子와 더불어 城내에들어가서 생선가게에서 생선묶었든 꾸레미를 가지게하고 얼마후에 그것을 버리게하였다。그러나 阿難陀의 손에서는 生鮮비린냄새가 가시지 안했다。이때에 부처님께서는 惡友를가까히하면 惡化되는것이 이와같다고 實驗해보였다는 說話가 佛本生經 法句譬喩經에傳하여지고있다。學期試驗을 치루고 여름放學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學生의 本分을 직히는것이 正道요 이것을어기는行爲를 하는사람은 惡友라는것을 銘心해야 할것이다。

料理講習會등
女學生會議서 決議

女學生會에서는 第二回 臨時總會를 開催코、夏季放學동안 料理講習과 本校 R・O・T・C 野營訓練生들을 위문키로 決議했다。

이날 會議는 總務 田鍾順(國三)孃으로 부터 지난 學期의 경과보고및 62年度 女學生會 豫算案에 對한 說明이 있었고 討議에 들어 갔는데 決議된 事項은、①一學期末 試驗이 끝나는 대로 女學生相互間의 親睦도모및 料理法을 習得키 위해 料理講習會를 연다。②本校 R・O・T・C 夏季野營訓練所를 찾아 위문 한다는 것 등이다。

優秀賞에 金裕天君
法學會懸賞論文入賞者發表

法政大學 法學會 懸賞論文審査結果를 12日發表。同日12時30分頃 總長室에서 施賞式이 있었다。

지난 6月10日로 募集을 마감한 應募論文은 總二十餘篇에 達하며 審査는 法政大 敎授들이 擔當했다。이번 受賞者들의 이름및 論題는 다음과 같다。

▲金裕天(法四)ー최우수상(總長賞)=有權의 效力

▲高時弘(法四)ー一等(法政大學長賞)=制憲論議와 나의意見

▲蔡鎔華(法三)ー二等(法政大學長賞)=慣習法의 法的地位

▲安碩煥(法三)ー三等(法政大學長賞)=刑訴者保護

第八回 實習劇發表會
16日부터 小劇場서開幕
演劇科年生들「危險地域」등두作品으로

實習을 通해 演劇의 生命인 演技를 鍊磨하여 지금까지 七回에걸쳐 實習劇 發表를 해온 文理大 演劇科에서는 十六日부터 第八回 實習發表會를 小劇場에서 갖는다。每日 오후 三時와 七時 二回에걸쳐 發表될 이번 作品은 유진・오닐原作。李根三譯인 「危險地域」으로 李海浪敎授의 指導下에 三파트로 나누어 李完浩(三)、鄭斗秀(三)、河剛一(三)君이 演出을 맡고 演技者는 二學年 全員이다。

한편 二十五日頃에는 三學年生들의 發表가있으리라 하는데 作品은 亦是 單幕劇인 유진・오닐作 李根三譯・「十字架 標識이 있는곳」을 全鶴柱(三)君의 演出로 公演될 豫定이며 新學期初엔 헨리・입센作 李眞燮譯「民衆의 敵」全五幕을 李海浪敎授의 演出로 三年生들에 의하여 公演될것이다。

鄕土文庫展示
14日부터 六日間

마을문고 진흥회에서는 제一회 文庫展示會를 오는14日부터 20日까지 6日間 國立圖書舘에서 연다고 한다。展示時間은 아침 9時부터 밤7時까지며 學生들의 많은 參觀을 요망하고 있다。

20日부터 夏期放學

19일로 一학기말 시험을마치는 본교는 20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번 학기말 시험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개학날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있다。

中大서 十月末限 懸賞論文募集

中앙大學校法政大學學生會에서는 開校三七周年을 맞이하여 第六回 全國大學生懸賞論文을 募集하고 있다。

社告

本紙는 夏期放學中 第二〇一號를 發刊하여 在學生 여러분에게 發送해드릴 豫定이오니 倍前 鞭韃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西紀一九六二年七月十二日

東大新聞社白

放學中野營訓練
ROTC候補生들

本校R・O・T・C候補生全員은 오는 二十八日부터 三十八師團에서 一個月間 野營訓練을 받게 된다。이번 訓練은 一期生에게는 마지막이며 二期生은 처음으로 總一百七十六時間의 訓鍊을 받게 되는데 그간 學校에서 理論과제식 訓練을 받던 것을 實際 實習하게 될것이다。同候補生들은 年百七十五時間의 校內訓鍊과 百七十六時間의 野營訓鍊으로 都合七百二時間의 訓鍊을 받게 된다。

한편 이 候補生들은 四週間 所定의 訓鍊을 마친 다음 來月二十五日에 돌아 올 예정이라고 한다。

宗敎實態調査
韓國學生宗敎學會

成大、서울、梨大、延大、東大의 宗敎關係學生들로 構成된「韓國學生宗敎學會」에서는 오는 夏季放學동안 宗敎部依賴로 우리나라 宗敎實態調査를 實施 한다고 한다。

이 宗敎學會는 韓國諸宗敎를 研究하고 世界各國 宗敎學會와 紐帶를 맺어 學術交流等을 圖謀코저 前記大學宗敎研究學生들이 지난 一月 組織한 것으로 그간 매주 土曜日마다 斯界 權威者를 招請하여 講演會를 열고 또 會員 들의 研究發表를 갖어왔다。

이 會에는 本校에서도 佛敎學科 鄭判奎(四)、成煥一(三、同會副會長) 吳亨根(三、同會、社會分科委員長) 君外九名이 加入、活躍하고 있다。

東國案內
주인 찾는 물건

本社에선 校庭에서 잃어버린 다음의 페스보드를 保管中에 있아오니 찾아 가시기바람。

▲李鋼(法四)=페스보드 및證明書一切

學友

在東大 釜山學友會를 오는 7月30日 오후一時、부산 문화 방송국 공개홀 에서 開催함。

在東大 평택學友會를 오는 7月25日 아침10時 평택읍 향미다방에서 開催함

紛失廣告

▲本籍 忠北 괴산郡 清安面 釣川里九二 番地 住所 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三街 一一〇番地 權五甲(佛敎科一年) 一九四一年一月十九日生 學生證手帖을一九六二年六月二八日 서울市內 정능신석동간 뻐스에서 분실하였음을 廣告함。

▲本籍 江原道 旌善郡 東面 石谷一區 五一九 住所 서울 西大門區 弘恩洞 一六九 西紀一九四二年一月十三日生 崔乘九(法二) 學生證을 五月二五日 校內圖書舘에서 紛失。

▲本籍 全南 靈巖郡 靈巖面 農德里一區 住所 서울 永登浦區 大方洞一四一 五統三班 申吉鉉 一九四一年九月二十一日生 학생증 등록증을 一九六二年 六月 二十四일 서울역~을지로四가 전차내에서 분실하였음을 광고함。

▲本籍 京畿道 仁川市 現住所 仁川市 숭의동 二四一 一九四二年生 金茂生(演劇科二) 證明書 전부를 七月一日 校內에서 紛失하였음을 廣告함。

▲本籍 서울特別市鍾路區 彌雲洞一七八 現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玉仁洞五七의二 一九三九年生 張潤集(化四) 學生證 兵役解除證및지갑을 校內에서 紛失하였음。

▲本籍 釜山市 東萊區 七山洞 一〇〇〇番地 現住所 서울市中區仁現洞二街一八九五統七班 池元龍房 崔炳佑(政三) 一九三五年十月十五日生 校內 學生課앞에서 紛失하였음。

▲本籍 慶北 慶山邑 三北洞 五二番地 住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上道一洞 十番地 八號 李得昊(經四年二三三番) 一九四〇年十月三十日生 學生證을 포함한 一切의 證明을 七月四日 下午 自宅에서 도난 당하였기 公告함。

▲本籍 江原道 原州市 平原洞 四〇二 住所 서울市 東大門區 용두동 一九三의59 張錫鎭(英三) 一九三七年生 지난 七月十日 校庭에서 學生證을 紛失하였음을 廣告함。

▲本籍 京畿道 金浦郡 月串面 高陽里 一六六 現住所 서울 特別市 中區 東子洞 四三의三 六號 李基準 農經學科三學年 西紀 一九四一年 四月 拾六日生 六月三十日 本校 運動場(농구장)에서 學生證및 第二國民兵籍登錄證을 紛失하였으니 拾得하신분은 本人에게 돌려주시면 厚謝 하겠음。

▲本籍 全南 海南郡 해남면 평등리 一七七。住所 서울 特別市 마포구 대흥동 28의3。趙 茂(化一) 一九四二年生 校庭에서 學生證을 紛失하였음。

▲本籍 忠北 清原郡 米院面 雲橋里 一五三 住所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一〇八ー二十一號 申 現 秀(行政科) 一九四三年七月二十三日生 六月二十日 가방과 학생증을 도서관에서 분실하였음。

―尨大한 佛敎思想을 理解하는데에 가장 손쉬운 册!―

◈「禪」이란 果然 어떠한 것일까?
戰後 歐美各國에서 「붐」을 이르키고 있는 禪(Dhyana)이란 果然 어떠한 것일까? 佛敎의 大乘思想이란 都大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佛敎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法門이다。
佛敎는 單純히 믿음을 要求하는 宗敎가 아니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法門이다。깨닫기 위하여 닦는 「禪」이야 말로 모든 形式과 法則에서 뛰어난 가장 自由로운 大道일 것이다。

◈本書는 八萬藏經의 眞髓를 紹介하였다。
흔히 難解하다고 말하는 佛敎의 術語들을 國文學을 專攻한 젊은 學僧의 부드러운 文章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하여 八萬大藏經의 眞髓를 紹介한 이 册은 生의 不條理에 苦惱하는 現代人에게 시원스럽게 트인 그 무엇을 보여 줄것이다。

◈現在 日本 宗立學校의 敎材로 쓰이고 있다。
佛敎에 對한 迫害가 尤甚했던 李朝에 있어서 이 글의 板本이 많은 것을 보아도 그 比重을 엿볼수 있는 것인바 「禪」으로 世界的으로 有名한 隣接國 日本에서는 壬亂을 치른 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册을 貴重視하여 現在 그 宗立學校에서는 이글을 敎材로 쓰고 있다고 한다。

西山大師 原著 法通 社刊 高級洋裝 模造
禪學刊行會 編譯 韓國出版協同組合 供給 四六版 二一八面

禪家龜鑑
定價 120원

〈附・懸吐原文〉
連絡處 서울安國洞 振替서울一九三五番 禪學院

◈佛敎思想을 가장 效果的으로 가르치기 위한 책이다。
壬辰倭亂의 記憶과 더불어 우리에게 길이 잊혀질 수 없는 「겨레의 얼」 西山大師! 그가 後生과 제자들을 가장 效果的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八萬大藏經中에서 五十餘本의 經・論과 祖師의 語錄 가운데서 요긴한 것만을 추려 모은 이글은、우리들이 방대한 佛敎思想을 理解하는 데에 가장 손쉬운 책일 것이다。

◈四溟大師의 「跋文」의 一部
『……이 글은 「八萬大藏經」의 요긴한 곳과 다섯 宗派의 根源이 모조리 이에 갖추어져서、낱낱이 이치에 어울리고 귀절 귀절이 宗旨에 들어맞아 치우치던 이는 둥글게 되고、절렸던 이는 통하게 되니 참으로 禪과 敎의 거울이며、깨닫는 데와 수행하는 길에 좋은 약이라 할 만하다。……』

◈「本文에서」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난 것도 아니며 죽음도 없었다。이름 지을 길 없고、모양 그릴 수도 없다。그 한 물건이란 무엇일까?……』
△『말없음으로써 말없는 데 이르는 것은 「禪」이고、말있음으로써 말없는 데 이르는 것은 「敎」다。마음은 禪이고、말은 敎다。』

法典研究會編
斯界權威者의 推奬(無順)
高試委員 韓泰淵敎授・高試委員 徐燉珏敎授・서울大 金辰敎授
서울大 郭潤直敎授・高試委員 鄭熙喆敎授・高試委員 金箕斗敎授

外國法典

法學徒의 矜持는 成文法의 淵源인 大陸法의 知識에 있다

特色
一、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國譯된 綜合外國法典으로 大憲章을 비롯한 世界主要國의 憲法과 獨逸民法・商事法 佛蘭西民法等 外國의 主要成文法의 全文을 收錄
二、各條마다 標題와 項表示의 附錄
三、번역의 正確과 主要法의 事項索引附錄

四・五版約六百面・每面二千三百餘字・縮寫二段組・크로스金箔케ー스藏
定價 三百원

(出版記念特賣開始)
七月末日限 本社로 直接注文하시는분에 限하여 部當 250원(送料包含)으로 配本함 但千部限定

法典研究會編
當路權威者의 推奬(無順)
高試委員 金箕斗敎授・高試委員 郭潤直敎授・高試委員 金道昶敎授
서울大 金基善敎授・高試委員 鄭榮錫敎授・高試委員 邊宇昌敎授
高試委員 李熙鳳敎授・李항寧敎授・高試委員 金振雄敎授

考試法典

特色
(新法收錄)(五月現在)
各級考試에 必要한 最新法令百三件을 收錄하여 常時携帶할수있는 少形法典으로서 이른바 本社의 編輯스로간인 「充實한책」・「읽고싶은책」・「읽기쉬운책」・「갖기쉬운책」을 具顯한것으로 受驗生은 누구나 다가져야 할 책

三五版總八百面內外 新體活字三段組・縮寫・模造紙印刷・크로스金箔・豪華케ー스藏
定價 二七〇원

(出版記念特賣開始)
七月末日限 本社로 直接十部以上 團體注文하시는분에 限하여 部當 220원(送料包含)으로配本함 但千部限定

서울鍾路區三淸洞三五의一三一
玄岩社
振替口座서울九八七番
電話(72)四九八九番

62年度上半期 東國文壇

一九六二年度 東國文壇 上半期를 結算한다。지난 一月一日字 부터 六月末까지 本報에發表된 詩와 評論의評을 담당교수에게 付託 하였다。그간 本報를 아끼는마음에서 많은 玉稿를 주신 在學生들께 감사드린다。 <編輯者註>

詩評

좀더「알리」는 힘」의 模索을

徐廷柱

○…東大新聞 上半期에 發表된 열네篇의 詩作—即 崔元植君의 「잠에서 들…○
○…리는」 同君의 「분홍손수건」 李愚碩君의 「하얀冬栢을」 同君의 「雪景」…○
○…」 崔元君의 「어떤情死결에서」 朴在薰君의 「出發」 李戊寅君의 「像…○
○…」 金時泰君의 「燈臺」 李世熙君의 「물소리」 具永範君의 「애드바룬…○
○…」 張忠源君의 「般若의 불꽃을」 鄭龍男君의 「獻燈詞」 金元來君의 「…○
○…나의五月은」 洪奎君의 「五月」 中性澈君의 「茂盛한六月의 허리에기대…○
○…어」를 읽은 所感을 여기 얼마큼씩 全體的으로 말하고 또 個別的으로…○
○…말해보려한다。

먼저 全體的으로 볼때、열네篇 全部에 「수박 겉할기」의 헷것이 보이지 않는것은 무엇보담도 반가운 일이었다。아직도 이 고장의 詩作品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거의 어데서나 열마만큼씩의 헷것을 보기는 例事인것인데、東國詩壇의 上半期作品에 이런게 안보임은 이곳의 誠實한 定着을 보여주어 마음든든하였다。勿論 좋은 編輯子의 選擇의 눈도 힘이 됐을 [illegible] 精進과 各自의 詩作力量 [illegible] 기쁨은 [illegible] 아니었다。

：「그러나、좀더 뭐라고 할지…」 하는 맛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또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illegible] 「수박 겉 할기」

가 아니라 그 속을 까놓고 보고있거나 속에 입을 대고 있거나、이빨로 물고 있거나、혹은 먹고도 있는건 반가운 일이나、그 맛을 참 맛나게 알리는 힘이 좀 더 있었드라면 하는것인것이다。[illegible] 「復興」 [illegible] 「復興」 [illegible] 이란 말을 여기 쓰는 까닭은 우리民族의 산 生活語脈은 自古로부터 綿綿히 내려오고 있었던 것인데、韓日合併後 日本文化人들에 依해 所謂 文化語란것이 생겨 文化人들에게 두루 注入되어 지금도 詩나 講壇이나 評論에서 이것들을 많이 쓰고있음으로 이걸 止揚하고 우리民族獨自的인 生活語脈에 돌아가는것은 그「復興」이란 概念에 該當되기 때문이다。

勿論、諸君들의 言語는 많이 復興되면서 있는것들임으로 우리實生活語脈에의 完全復歸는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멀지 않은일로 생각한다。

아래 個別的 所感을 조금씩 말해보겠다。

崔元植君의 두作品中에서 나는 「분홍 손수건」을 좋아한다。말들도 이만하면 文化語的流行勢力을 脫皮해 많이 淨化된것이며、想의 초점도 相當히 高度한 것이다。내가 앞서 말한 수박속의 빛깔과 이 손수건의 빛깔이 거의 같은것은 全然 偶然한 一致에 지나지 않지만 하여간 이 손수건의 붉은 빛의 맛은 相當히 돋뵈고 또 말해져있다。「오셀로」의 손수건에 대조되는것으로서의 印象이 제법 鮮明히 온다。

「잠에서 들리는」은 좀 더 초점이 뚜렷했으면 한다。

李愚碩君의 두篇의 詩作「하얀冬柏을」과「雪景」은 아직도 具象化돼야할 抽象들을 더러 가지고 있다。그의 詩精神은 充實한것이나、이것들이 적지아니 그것을 無力하게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말들도「始原」이니「作業」이니 하는 類의 말들代身에 우리의 實生活語를 찾어내야할걸로 안다。

崔元君의 「어떤情死결에서」에서 거슬리는것도 「次元」이니 「入住의 旅程」이니 하는 말들이다。이런 類의 말들을 많이 쓰는것이 詩壇新人들의 一般的語勢이나、이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이런 말법만아니면 우리와 많이 가까워 질수있는 作品이 이 때문에 減興이 되는걸 보는건 참으로 遺憾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나 누구 그렇게 가까운일을 앞에 두고、떠나는 마당에서 「비로소 混돈의 마을로 入住의 旅程을 챙깁니다。어머니。」하는 流의 말法을 쓰지는 않는다。情死는 人生의 한 切迫한 事態인건데、여기에서 말法이 이러면 그 切迫感이 아무래도 減少된다。

李世熙君의 「물소리」는 白日場의 即興詩인만치 想의 奧達한 맛은 적으나、그래도 詩의 素質은 비이는 作品이다。

純國文으로 쓰는 意圖는 훌륭한것이다。

張忠源君과 鄭龍男君의 두篇의 佛敎의 詩는 첫제 漢字語로 된 佛敎用語들의 勢力을 免해야겠다。詩란 그詩人의 獨自的인 體驗을 通하는 노릇이니 佛敎的用語를 꼭 뒤집어 쓸 必要는 없을것이다。實體驗한 佛敎의 境地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表現하기에 힘쓰길 바랜다。

中性澈君의 詩『茂盛한六月의허리에 기대어』에는 좋은 詩人의 싹이 보인다。이 作品의 「보류므」가 充分한것이라고는 볼수없으나、그대로 抒情의 切實性이 좋고、言語를 페까다룹지 않게 다루고있는것도 期待할만한 點이다。

朴在薰君과 李戊寅 金時泰 具永範 洪奎 諸君의 詩는 詩想의 探求가 아직도 훨신 더 돼야한다。「이만큼으로 라도 써보자」하지 말고 詩想의 體驗을 끈질기게 더 계속하기를 바란다。一般的所感을 말할때 말한것처럼 詩의 수박의 內部와 對해있는것은 알수있으나 그 맛본程度가 더 해야겠다는 말이다。

끝으로 金元來君의 詩를 두고 말하자면 말이 流通力을 가진듯 甚히 그렇지못함이 實로 아직 감질나는 안타까움이였다。어찌해서라도 좀더 [illegible] 린想일수록 言語는 더욱이 잘 流通해야한다。

(詩人·文理大副敎授)

評論評

主題는 現實矛盾의 批判

抽象的論調삼가해야

金鎭福

大學新聞을 通하여 젊은 知性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오늘의 벅찬 現實에 어떻게 對決하려는 姿勢를 取하고 있느냐를 檢討해 보는 일은 有益한 일이 아닐수 없다。特히 社會的 後進性과 民族的不幸을 超克하려고 苦鬪하고 있는 韓國社會에 있어서 大學生들의 發言은 大端히 重大視되고 있다。이번 東大新聞社에서는 紙齡二○○號 特輯을 發刊하기로 되었다。今年 一月부터 六月末까지 사이에 發刊된 東大新聞에 揭載된 學生論說中 法政系만을 추려서 評價된 바를 몇가지 ○쓰려고 ○한다。

于先 量的으로 보아 文科系에 뒤지고 있고 그 論調에 있어서는 現實的인 矛盾에 對한 批判이 主가 되고 있다。먼저 法科 金龍吉君의 「抵抗權과 民主主義」 (一九六號—一九七號)는 四月의 鬪士로서 論究할만한 「데마」였다고 보겠다。四·一九以後 抵抗權의 問題는 法學者에 依해서도 活潑히 論議된바도 있었다。執權者의 恣意的 乃至는 非法的 權力濫用에 對한 國民의 最終的 對答은 革命이다。金君은 歷史的으로 槪觀하고 近來의 立法例와 學說을 論하고 四月革命을 「公法學的見地」에서 正當한 抵抗權의 行使이며 또 意義反映을 爲해서는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結論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缺陷을 指摘하련다。即 金君은 抵抗權이 憲法保障의 最後手段이라는것을 認定하면서도 論述中에는 『그러나 憲法의 保障으로서 抵抗權을 行使한다는것은 政治的인 面으로 보아서 뿐만아니라 國民들의 文化水準을 端的으로 世界에 알리어 커다란 羞恥가 아닐수 없다。次期國會議員選擧에는 憲法을 守護할수있는 人格者를 選出하여야 할것이다』라고 論述하고 있다。

그런데 抵抗權의 行사를 羞恥라고 보고싶지는 않다는 點이다。執權者의 暴政에 默從하는 民族이야말로「政治的인 面으로 보아서」뿐만아니라 世界에 알리는 文化水準을 端的으로 보더라도 큰 羞恥라고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바이다。그러나 金君이 言論自由를 强調한것은 좋은 點이였다。民主主義란 選擧의 自由와 思想表現의 自由없이는 생각할수없다。끝으로 將次 抵抗權의 행사라고 하는 革命이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思想表現의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는것은 妥當한 見解라고 하겠다。

다음 政治學科에서는 세篇의 論說이있었다。李鳳相君의「現代政治와 매스콤」(一九三號—一九四號)부터 檢討하겠다。李君은 序頭에서 現代政治에 있어서의 매스콤이 차지하는 位置를 論하고 一黨獨裁體制인 共産國家에서는 매스콤은 完全히 國家에 依하여 統制, 管理되어 御用化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또한 金君은 後進國에 있어서 言論自由에 對한 權力者의 壓制를 論하고 있다。그러나 IPI의 「추렷히」報告書에 依하면 實際에있어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는國家는 그리 많지 못하다。後進國家에 있어서 新聞은 [illegible] 憲法으로서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나 그 實際面에 있어서는 言論의 自由는 적지 않은 制限을 받아온 것이 事實이였다。李政權末期에 京鄕新聞을 廢刊하였든 前例를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政治學을 工夫하는 金君으로서 좋은 테마를 다루었다고 본다。

다음 兪貴童君은 「敎科目과 講義時間」이라는 題目下에 學校當局에 對한 苦言을 提起하였다。兪君은 學點中心의 敎科課程이 學習에 만족할만한 成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또 百分間講義의 實效없음을 强調하였다。우리 學生들에게는 勿論 敎授에게도 좋은 參考가 될만한 內容이었다。

또 政治學科의 金洋一君은 「새世代의 摸索」이라는 主題下에 「政治的人間」을 中心으로 (一九五號) 政治에 있어서 人間이라고 하는 問題를 論述하고 있다。〈퍼서나리티〉라고 하는 問題는 非單 政治學에서뿐만 아니라 社會學全般에서 큰 關心事로 되어있다。金君은 論述中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歷史는 粗雜하고 낡고 썩었다」고 외치면서 새로운 것을 模索하고 있다。淸敎徒의 精神과 美國의 發展相을 들고 民主主義의 傳統確立과 政治意識의 確立으로 「우리民族의 낡은因襲과 움직이지 못한 惰性의 一掃」로 「眞正한 意味의 民主主義」具現을 力說하고 있다。이것은 分明히 韓國의 近代化에 絶對必要한 精神的인面과 함께 經濟·社會的인 面과 前近代性의 脫皮없이는 도저히 民主主義가 제대로 實現될수없다고 强調한 것으로 좋았다。그러나 金君은 큰問題 또는 抽象的인 問題만을 取扱하지말고 좀더 現實的인 問題를 捕捉하고 파헤치는 일이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行政學科의 裵龍雲君은「高試行政科廢止論」은 現行高試制度를 잘 批判하고 있다。夜警國家에서 職能國家에로 發展한 現在에 있어서 [illegible] 行政官의 資格을 賦與한다는것은 不當하다고 論駁하고 있다。[illegible] 法律的 素養없이 行政事務를 감당해 나갈수도 없으니만큼 [illegible] 高試와 行政學의 兩者를 如何히 잘 調和시키느냐가 問題일 것이다。裵君이 强調하고 있는 行政科高試制를 廢止하라는 論述은 앞으로 相當히 研究되어야 할 問題로 본다。[illegible] 紙面의 制限으로 短評은 이만 [illegible] 法政系의 論文들은 文科系에 比해 量的으로 [illegible] 內容에 있어서 抽象的인 論調에 [illegible] 있는 點을 [illegible] 現實을 파헤치는 [illegible] 論文들이 이 나라의 國礎를 더욱 鞏固히 할수 있다는 點을 다시 한번 强調해둔다。

〈法政大助敎授〉

本報를거쳐나간

文壇의 旗手들

韓國의「옥스포드」를 自負

小說家·評論家·戲曲家등도 六名이나

八年間에 詩人만 二十餘名

東大를 韓國의「옥스 포드」라고우리는 흔히 自畵自讚 하기를 躊躇치 않았다。그 文學的傳統이 옥스포드에 비견할만 했기 때문이었다。四十餘年을 면면히흘러내린 傳統속에서 無數한 詩人과 作家들은 자라났다。지금도 가라성 같은 별들이創造의 하늘을 그리고 있다。韓國의 詩와 小說, 評論, 戲曲등 이 모든 領域에 걸쳐 東大出身文學人이 포진않한 곳은없다。그 數에 있어 全文壇의 六分之一을 占하고 그 質에 있어서도 가장 代表的이며 前衛的役割을 해온 것은 勿論이다。特히 詩壇에있어선 壓倒的이다。英國의 詩가 옥스포드大學에서 이루어지듯 韓國의 詩가 東大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自負해도 좋다。이것은 社會的共認事實이기도 하다。

해마다 東大文壇에 데뷔하는 東大文學人은 그 數가 늘어가고 있다。[illegible] 十餘年의 傳統을 가진 「東國詩集」[illegible] 國內初有의 大學文藝誌인 「東國文學」[illegible] 實로 列擧키 어려울만큼 [illegible] 文化的 貢獻이 많다。지난 十年間 東大新聞은 [illegible] 東大文學을 키우는 廣場으로서 客嗇치 않았다。一九五二年度 釜山 避難期에 創刊된 以來、東大新聞은 東國文壇의 대견스런 발판이자 東大文學徒의 代辯紙라 할만 했다。

다음 東大新聞을 通하여 文壇에 進出한 現役作家들을 年代別로 살펴본다。

一九五○年代 東大文學徒들은 가장 獨自的인 文學修業을 通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룬 作家들로서 自滿이 大端했다。그래서 當時 「文藝」誌를 通한 新人作家의 推薦制와도 등졌던 것이 事實이다。그들은 〈누가 敢히…〉 한 精銳들이었다。패기만은 이렇게 商標(?)였다。그러나 완고한 文壇의 守門長들은 推薦制를 不信하는 이들을 [illegible] 있어야 했다。

한편 新進들을 받아들일만 [illegible] 東大文學人들은 五○年代 [illegible] 現實에 直面해야만 했다。그중에는 推薦의 關門을 通하지 않고도 많은 精銳들이 活動舞台를 잃고 [illegible] 閉業했다。

現在 韓國文人協會評論分科委員長인 李哲範氏는 東大英文學을 專攻하면서 「新聞小說의 問題」「現代文學導入과 그 問題」「外國文學에 關한 管見」등 많은 論評을 發表했고 前衛的인 詩作도 試圖했다。이보다 앞서 高等學校在學時에 「文藝」誌를 通하여 詩壇에 데뷔하여 新人文學賞을 탄 李炯基(佛)氏는 本報에 「倦怠·李箱·나」등의 隨筆및 詩를 發表하면서、은연중 推薦制應募熱을 刺戟했다。이를 契機로 「古木頌」「底力」등 實存哲學의 影響을 받아 詩作을 하던 黃命(國)이 五五年度 東亞日報 懸賞募集에서 「噴水」라는 作品으로 文壇에 첫발을 내딛이면서 東大文學人들이 文壇進出意欲을 더욱 倍加했다。그후「날개는 없다」등 實驗的 作品으로 異彩를 띄었던 李昌大(史) 人은 「문한藝術」誌를 通 [illegible] 樹」「旋律」등의 「街路樹」그 뒤를 이어 「西將」의 金先現(英)詩人과 「노을」「그날당신은」등의 李星煥(國)詩人이 「現代文學」을 通하여 詩壇에 登龍되었다。또한 「壁」「모니카」「나의 빠르크여」등을 發表한 宋赫(國) 詩人과 「동백」「極光」「너가간 가을에」의 南九峰(國) 詩人이 五七年度 「自由文學」의 第一回詩部推薦을 똑같이 받았고、이어 「다시 漢江橋에서」「房」「年前」등의 詩와 「人間以前」「끝없는 斷崖」등의 小說을 本報에 發表한 李賢雨(國) 詩人과 「철條網」「自畵像」「꽃」등의 趙漢吉(國) 詩人이 亦是 「自由文學」誌를 通하여 詩壇의 新進으로 빛을 받았다。

그리고 在學中에 戲曲部門 新人文學賞을 獲得한 바 있는 吳學榮(國) 氏는 二學年在學時 『現代文學』에 戲曲推薦을 받았는데 그는 本報에 『證言하는 批評文學』『現代詩와 薔薇騎士』등 많은 評論을 發表한 바 있다。『나무』『旗』『窓』『失意의 浪萬』(國) 詩人은 『文學藝術』誌에 一回推薦을 받고 昨年度 『現代文學』誌에 다시 推薦을 받았으며、『仙人掌』『花瓶』의 李東淵(國) 詩人은 『自由文學』을 通하여 二回推薦을 받고 沈默을 지키고 있다。

한편 「五月」「葉書」「門앞에」등을 發表한 朴貞姬(英)詩人과 小說「오! 쏘레미오」를 發表한 小說家 徐升海(英) 氏가 「現代文學」을 通하여 文壇에 데뷔했다。또한 本報에 詩를 [illegible] 才能을 보이던 金鍾元(國) 詩人과 「詩人의 日曜日」[illegible]

國詩壇을 빛낸 姜泰烈(哲) 詩人이 「思想界」를 通하여 進出했다。崔元植(國) 詩人은 「作品」「넘께」「내가사랑하는 친구들에게」등을 發表하면서 「自由文學」으로 데뷔했고、「오늘의 位置」「煖爐周邊」의 金思林(國) 詩人이 亦是 「自由文學」誌로 나섰다。그리고 小說家 吳在卿(國) 氏는 本報에 「潮水」「農民」등을 通하여 꾸준한 그의 力量을 보여주면서 「自由文學」誌를 通하여 推薦을 받았다。

「어둔 窓邊에서」「水曜日午後」의 朴烈我(國) 詩人은 東亞日報에、「어느 女人에게」「海邊에서」의 崔元(國) 詩人은 朝鮮日報、그리고 現在 在學中인 金文肅(國)氏는 小說로서 朝鮮日報新春文藝에 堂堂히 關門을 突破한 것이다。

이어 「우물」「들꽃」「상사리」등의 黃甲周(國) 詩人은 오랜만에 「現代文學」誌의 推薦을 完了하였고、張文平(國)氏는 「現代文學」誌에 第一回評論推薦을 받아 그 前途를 촉망케하고 있다。

새로운 民主主義 (下)

兪光震

「만하임」의 이른바 『自由를 爲한 計劃社會』를 建設해야 한다。

이 와같은 인텔리겐차階層의 새로운 創造的 生活體制를 爲한 主張이 一九五一年 푸랑크풀트의 「社會主義 인터내쇼날」에서 誕生을 보게 된 「民主社會主義」이다。

民主社會主義는 從來의 社會主義와 判異한 것으로 二次大戰前까지는 「맑스」의 正當한系統을 물려 받았다고 主張한 「칼·카우쯔키」(1852—1939) 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가 民主主義的인 社會主義의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며 「레닌」(Lenin 1870—1924) 의 「眞正 맑시스트」를 否認하고 平和的인 議會鬪爭을 通하여 資本主義를 打倒하자는데 있었다。그러나 그 目的에 있어서는 唯物史觀에 立脚한 歷史的 必然性과 發展段階說을 主張하므로 「레닌主義」와 同一한 이데올로기性을 內包한 獨斷論에 不過한 것이다。

民 主社會主義는 階級史觀에 立脚한 社會主義를 全部否定하고 民主主義를 本質로 民主主義의 徹底한 完成을 至上目標로 하고있다。[illegible] 完成을 期하기 爲하여서는 國民을 無知蒙昧의 狀態에서 解放하여 知的水準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國民은 國家主權者로서의 政治制度와 政治運營의 實際를 理解치 못한다면 「막카바」의 이른바 獨裁政治下의 愚昧한 國民으로 化하고 말것이다。古代希臘의 「소크라테스」(BC469~399)도 敎育的 手段을 通하여 「아테네」의 腐敗한 政治를 바로잡을려 一生涯를 바쳤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만하임」같은 民主主義學者는 새로운 建設方途로 敎育을 重要視하고 있다。

人 間啓發을 爲한 投資는 特定社會의 資源을 開發하는 方法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이다。「갈브레이스」는 『人間의 知的投資』라고 하는데 [illegible] 啓發을 爲한 投資는 道路와 鐵道 또는 그리고 機械 工具에 投資하고 또는 他有體資本財에 投資한것 보다 썬 더 큰 國民所得의 增大를 틀림없이 가져올 것이라 하였으니 敎育의 組織的 創造的 施行은 人間의 能力을 現代化하는 過程에 必須不可缺한 要件이라 하겠다。

民主社會主義의 史觀은 [illegible] 人類歷史의 創造的 發展을 [illegible] 共生的 發展過程이라 보면서 [illegible] 普遍的 道義的 世界觀과 結合하여 [illegible] 思考方式에 있어서 一黨一派的 偏見을 超越한 客觀的 不偏不黨의 立場을 取하며 「만하임」이 主張한 [illegible] 「隨時取捨」 [illegible] 善되는 [illegible]

經 濟體制 또한 私企業의 自由와 同時에 競爭을 奬勵하고 獨占企業 [illegible] 基幹産業과 公益事業은 民族資源의 根幹으로 公企業으로 하되 公企業과 私企業이 混合된 計劃經濟를 樹立하여 「自由放任의 原理」와 『獨裁的 計劃統制의 原理』를 包越하는 『自由와 多樣性을 目標로하는 民主的인 計劃社會』를 萬人資産家社會를 建設하려는 것이다。形式的인 平等이 아닌 法律的 [illegible] 自由平等社會만 아니라 保障하며 [illegible] 經濟的 自由를 開發하는 同時에 多元的 具體的 [illegible] 議會制를 通한 [illegible] 創造하려는 것이다。

文 化國家의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均等을 [illegible] 國民經濟體制를 建設하여 國民利益에 寄與함으로써 文化國家를 形成하는 것이다。前世紀에 잃었던 人間本性을 되찾아 「新人間」의 獨立性을 지니는 個性과 「實存的」인 運動을 個別者의 自覺으로 融合된 國家는 「國家로서」民을 爲한 社會를 이룩하여 人間의 存在價値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理性人間과 [illegible] 高度의 生活契機를 創造的으로 發展시켜 自由로운 創造國家를 形成하여 勞動人間의 結合으로 創造人間을 낳아 「브레인」을 重點을 두어 啓發하는 理想的 形態를 構成하는 것이다。

韓 國은 一九五○년대의 四·一九와 五·一六의 두차례 民族革命을 遂行하였으니 그리고 世界史的 意識하는 民主主義의 [illegible] 「인텔리겐챠」階層이 民主的인 大量의 意識을 마땅히 精粹分子가 二十世紀後半期의 存在價値를 上述한 民主社會主義體制가 바와같이 完全히 樹立되는 날 「眞正한 民主主義」는 始發하여 [illegible] 鼓動을 울린다。

(政治科)

메아리

〃사랑은 本能〃

○…『太初에 人間은 자웅同體였다。코도 둘、눈도 넷、얼굴도 둘、팔다리도 넷、生殖器도 두개씩이었고 함께 가지고 있었다。이 人間은 무척이나 불편을 느낀 나머지 어느날엔가「제우스」大神에게 몸을 둘로 갈라 줄것을 애원하였고「제우스」大神은 이를 승락、몸을 둘로 갈라주었다。이때부터 男子와 女子가 나뉘어졌다。이로부터 얼마나 歲月이 흘렀을까? 한 男子와 女子는 서로 흩어진 自己의 分身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男子와 女子는 過去의 同體를 그리워하며 서로 자웅同體의 時節로 되돌아 갈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男女의 性愛를 그린 「플레이톤」의 虛構的 傳說! 男女가 서로 사랑하고 結合하려 드는 本能이라는 것은 人間의 本能이라는 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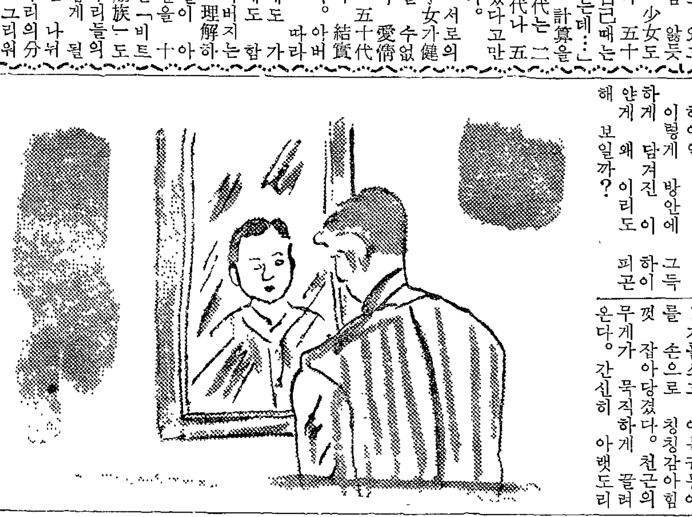
○…요즘에 와서 二十代의 愛情은 窮地에 빠져 드는지도 모른다。 無道德의 고리타분한 倫理와 西歐의 아직 들잡히지 못한 틈에서 우리의 愛情은 방황하고 있다。戀愛는 結婚이고 結婚은 愛情의 結實이라는 感情도 있고 氣分과 少女들의 사랑을 잃다만 냉가슴 앓듯 있다。四十代나 五十代는 過去 自己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엉뚱한 計算을 하려들고 二十代는 四十代나 五十代는 낡았다고 만 不信하려든다。

○…허나 서로의 理解없이 子女가 健全하게 자랄수 없고 二十代의 愛情이 四十代、五十代의 理解없이 結實을 맺기는 힘든다。「뮤직·홀」에 도 보고「미팅」에 가 보면 아버지의 世界를 理解할 [illegible] 分理解하다면 「太陽族」「비트族」도 없어지고、아름답게 우리들의 愛情은 그러면 結實될 것이다。우리의 分身을 찾는 마음 그리워하는 것도 氣分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B】

創作

소라

白承奎 作
吳明哲 畵



[illegible] 지연은 가빴던 숨을 [illegible] 석고? 그래 참 어데선가…。석고가 있었을 텐데…。유난히 눈이 움푹 패었고 [illegible] 코가 우뚝했던 석고가 [illegible] 침침한 곳에서 아유난히 하얗게 [illegible]

[illegible] 느꼈다。온몸을 그렇게 불덩이로 만들었던 열이 싸악 가시어지자 오스스 서늘한 한을 느꼈다。[illegible] 간신히 손을 잡고는 [illegible] 몸을 일으켜 [illegible] 왜 [illegible] 무게가 잡아당겼다。간신히 목직하게 아랫도리를 끌려 [illegible]

에 이불을 걷어 치곤 [illegible] 맥없이 딱 물체가 방바닥에 떨어지는 양 놓았다。손바닥으로 짚어 팔이 나가 떨어진다。지연은 그러진다。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새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바라 보았다。[illegible] 새벽이 밝아오는 [illegible] 머리위로 [illegible] 빛을 [illegible] 커텐 [illegible] 규칙적인 [illegible] 앉지도 못하고 [illegible] 그는 [illegible] 생각하면서도 일단 체념한다。

채 머리맡에 부산하게 놓인 물체들을 바라다 보았다。테불밑에서 빠져나온 의자가 한구석으로 나자빠져 있고 물그릇이 벵그러니 엎어져 있다。그리고 [illegible] 방바닥으로 시야를 옮겨 갔다。[illegible] 장판 [illegible] 물이 배어 바닥이 넓게 얼룩져서 [illegible] 진하게 [illegible]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illegible] 손가락을 눈앞으로 끌어 오른손을 [illegible] 첫째 [illegible] 한 면적이 [illegible] 아주 그리고 부풀어 [illegible] 자리로 불들여 [illegible] 대단치는 않은게라고 생각했다。[illegible] 지연은 그렇게 [illegible] 주다니。[illegible] 커텐을 열어 젖히고 [illegible] 원한 흡족하게 힘을 주며 [illegible] 몸을 [illegible] 에 다가 [illegible] 지나 침의 벽에 [illegible] 거울을 보았다。[illegible] 질하게 시꺼멓게 기름에 젖어 [illegible] 크러진 머리칼 [illegible] 그렇지 않아 [illegible] 이 한결 [illegible] 그 평평한 거울에 비친 [illegible] 어색하게 [illegible] 진하게 색을 그냥 [illegible] 나는 [illegible] 근육이 [illegible] 어 [illegible] 것이 [illegible] 다。

[illegible] 새 [illegible] 손이 [illegible] 소라 [illegible] 울려 가다 [illegible] 눈물이 흘 [illegible] 다。(國文科)

(完)

國語國文學

論文集

第三輯

目次

'德'字 辨—'願往生歌'의作者 問題— ·梁柱東··(1 — 6)
助用詞攷 ··金根洙··(7 — 18)
玉仙夢攷 ··金起東··(19— 29)
새로운 文法敎育의 構想 ··金聖培··(31— 41)
許蘭雪軒과 그의 歌辭 ··梁濂奎··(43— 51)
國文學上의 杜詩 ··李丙疇··(53— 79)
韓國現代批評文學의 史的槪要 ··趙演鉉··(81— 91)
'ㆆ' 特殊名詞攷 ··金英培··(93—105)
傍點의 硏究 ··張泰鎭··(107—115)
15世紀語의 處格 異例攷 ··崔世和··(117—127)

東國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62

學士考試

英語講座

時事英語學院 院長 文昌淳 先生
③=1930 (YWCA앞·고려당東便)
開講 7月16日 (一個月完成)
敎材 學士英語四週間

講師 文昌淳 先生
(HLKY 時事英語 放送擔當)
時間 夕·4·30—5·50
講師 李石雲先生
時間 朝6.00—7.20
夕7.40—9.00

就職試驗 英語講座
三位一體·DIGEST·TIME·NEWSWEEK